

昭和七年七月二十九日發行 (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三十七年七月十九日 (第三種郵便物認可)

한글

第六號



本號要目

- 綴字法の理論과 實際.....
- 한글의 經過.....
- 한글 研究材料의 文獻.....
- 豪華의 意氣.....
- 質疑應答.....

朝鮮語學會編輯

綴字法에 對한 本誌의 態度

朝鮮語 綴字法의 完全無缺한 統一案이 確立한 뒤에, 本誌가 나오는 것이, 그 바른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綴字法 統一이란 것은 다른 나라 말의 例를 볼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時間으로 數百年, 사람으로 無數한 사람이, 아무 整然한 法則이 없이 써오든 우리 말의 綴字法을 統一함에는, 여러 가지 複雜하고 錯亂한 問題가 많다. 그리하여, 本會로서는 年來로 그 統一案 作成에 애쓰는 中에 잊지 않는, 그 案이 實際로 成立하려면 아직도 얼마나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그런데, 本誌에 關한 世間의 要求는 緊切함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標準으로의 形式을 가지고, 이 『한글』이 出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會의 議決에 좇아, 編輯의 全責任을 지닌 李允宰氏가 위선 本誌의 한글 綴字를 校正하기로 하며, 學術에 關한 各人의 主張하는 部分만은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本誌를 通하여 綴字法에 關한 研究가 많이 發表되며 討論되어서, 하로라도 속히 統一案이 成立되기를 期待하자 함이 本會의 決議였다. 그러한즉, 天下 同志와 讀者 여러 분은 이 앞으로, 研究 發表, 意見 討究等에 많이 協同하여, 이 至重한 事業에 完成에 힘쓰어 주시기를 바란다.

비 리

| | | |
|-----------------------|-------------|-------|
| ◇綴字法의 理論과 實際 | 李 鉞 | (225) |
| ◇한글의 經過 | 李 秉 岐 | (232) |
| ◇한글 研究 材料의 文獻 | 金 允 經 | (236) |
| ◇豪雄의 意氣(逸話)(二回) | 金 克 培 | 256 |
| ●質疑 應答 | | (259) |
| ●通信欄 | | (261) |
| ●本會 記事 | | (261) |

來 號 豫 告

重 要 目 次

| | |
|--------------------|-------------|
| ◇한글 並書 論 | 申 明 均 |
| ◇경바침과 ㅎ바침 問題 | 李 熙 昇 |
| ◇語尾活用과 段活用批判 | 崔 鉉 培 |
| ◇異說 批判 | 최 현 배 |

綴字法の 理論과 實際 (上)

李 鉉

目 次

| | |
|---|--|
| <p>A. 綴字法の 理論編</p> <p>一. 理論의 提起</p> <p>二. 文字의 批評</p> <p> a. 表意文字와 그 批評</p> <p> b. 表音文字와 그 批評</p> <p>三. 表音文字 單語綴의 表意化와 綴字法の 批評</p> <p> a. 任意的 綴字法과 그 批評</p> <p> b. 古典的 綴字法과 그 批評</p> <p> c. 科學的 綴字法과 그 批評</p> <p>四. 理論의 歸結</p> <p>B. 綴字法の 實際編</p> <p>一. 綴字法の 原則的 基本態度</p> <p>二. 單語綴 表意化의 方法</p> <p> a. 單語의 實質部分과 形式部分(實詞와 助詞)과의 區分表記</p> | <p>b. 合成語의 合成分子의 語根表示</p> <p>c. 單語의 觀念의 單一化</p> <p> 1. 化合的 合成語의 表記法</p> <p> 2. 轉成語의 表記法</p> <p> ㄱ. 固定轉成語의 表記例</p> <p> ㄴ. 變動轉成語의 表記例</p> <p> 3. 擬聲語와 擬態語와의 表記法</p> <p> ㄱ. 擬聲語의 表記例</p> <p> ㄴ. 擬態語의 表記例</p> <p> 4. 單語에 意味없이 表示된 音節의 整理表記法</p> <p>d. 不規則 綴法의 許與</p> <p> 1. 語音의 二樣의 表記法</p> <p> 2. 變格活用語의 表記法</p> <p>e. 漢字音의 表記法</p> |
|---|--|

A. 綴字法の 理論編

一. 理論의 提起

人類가 要求하는 가장 理想的인 글은 學習上 便易와 實用上 便益을 兼全한 그런 글이다.

지금 우리는 學習엔 매우 便易한 아름다운 文字를 가졌다. 그러나, 그것은, 綴語法에 있어서 아직, 實用上 便益을 가질만큼 사람의 손뿌리가 完全히 가지 못한채 그대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文化 向上의 여간의 큰 委遲를 받고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서 우리는 綴字法의 合理化를 부르짖게 된다. 그런데, 그 綴字法의 合理化의 根抵的 理論은, 文法學과 聲音學에 根據한 條理 整然한 綴法을 일으켜 함도 勿論이러나와, 무엇보다도 實用에 있어서, 讀書能率의 增進問題를 第一 重大한 着眼點으로 한다.

지금 나는 이 理論을 밝히려 함에 먼저 文字의 批評을 비롯하여 本論을 展開하려 한다. 그것은 原來 讀書의 能率은 文字의 本質에 直接 關係된 까닭이다.

二. 文字의 批評

文字는 그 構造의 性質의 서루 다를을 따라, 대체 두 種類로 가르나니, 하나는 表意文字요 다른 하나는 表音文字다.

a. 表意文字와 그 批評

表意文字란 것은 言語의 內容의 材料인 思想(註一)을 本位로 삼아 가지고, 한 글씨로 直接 한 單語를 表記하도록 지은 書記的 符號니 漢字 따위가 곧 그것이다.

이 文字는, 文字의 單位가 곧 事物의 概念에 對한 直接의 符號므로, 읽을 때에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도 곧 그 文字에 約定된 概念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글을 읽는데, 時間과 努力이 꼭 적게 들어서, 讀書의 能率을 높게 하는 長處가 있다. 그러나, 이 文字는, 無數한 單語마다 符號가 다 따루 있게 되므로, 文字의 數가 너무 많아서, 배우기에 너무 長久한 時日이 걸리는 不利益이 있고, 또 끊임없이 새로 생기는 말을 應하여 들러 쓸수 없는 缺點이 있다.

그러므로 이 缺點을 補充하는 方法이 自然히 생기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한 單語의 意味를 가진 文字를 그 單語와도 소리가 같은 다른 意味를 가진 單語에 假借하여 쓰는 假借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테면,

皮革의 革을 改革의 革으로,
 經過의 過를 過誤의 過로,
 手足의 足을 豐足의 足으로, 쓰는 따위다.

그러나 이 方法은, 表意文字의 本質을 變치 않고, 오직 한 表意字로 數種의 單語를 表記함에 지나지 못하므로, 보는대에 그 뜻이 서루 섞갈리게 된다. 이를테면,

「李朝之時, 西北之人, 雖聰明才智有功無過僅爲持平掌而已」란 글을 본 때에, 句讀를 「有功」에 두어 「無過」의 過를 「超過」의 過로 解釋할는지, 그러참으면 句讀를 「無過」에 두어 이것을 「過失」의 過로 解釋할는지, 얼른 判斷이 나서지 못하고 그 뜻이 서루 섞갈리는 것과 같은 따위다. 이것은 한 文字로 두 뜻을 表示하는 過字를 쓴 까닭이다. 그러므로 萬一, 過字를 쓰지 말고 한 뜻을 表示하는 字를 쓰게 된다면, 이러한 弊端이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過字 대신에 罪字로 바꾸어 쓰면, 罪字 앞에 句讀를 들 것이요, 逾字로 바꾸어 쓰면 功字 앞에 句讀를 들 것을 얼핏 判斷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루 섞갈리게 되므로 일껏 만들어 낸 그 補充法은, 도리어 表意文字의 長處를 減殺할지언정, 그 缺點을 根本的으로 除去할 수는 없다. 이에서 그보다 한層더 進歩된 方法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곧 文字에 約定된 固有한 意味를 떼어버리고 이미 말로 因하여 붙여진 그 文字의 音聲을 取하여 가지고 말의 소리를 적게 하여 이 말 저 말에 自由自在로 들러쓰게 한 것이다. 이것을 表意文字의 表音文字化라 이른다. 이를테면, 中國 白話文에 「해·돋는·쭝」이란 意味를 가진 東字와 「해·지는·쭝」이란 意味를 가진 西字와의 그 本意味를 各各 떼어 내버리고 이 두字를 合하여 東西 卽 物件이란 意味의 말을 적으며, 또, 「열·사람」이란 뜻을 가진 什字와 「조그·마하다」란 뜻을 가진 麼字와의 그 本意味를 各各 떼어 내버리고 이 두字를 合하여 什麼 卽 何란 意味의 말을 적는 따위가 그것이다. 朝鮮의 吏讀도 그것이요 日本의 萬葉假名도 그것이다.

(註一). 言語는 思想의 一面과 音聲의 一面으로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우리 東洋 사람이 日常 主食하는 食物」이라는 概念(概念은 곧 思想의 單位)의 一面과,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을 딱 벌이고 또 다시 입술을 다물 때에 나는 소리」의 一面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思想의 一面을 言語의 內容的 材料라 하고 音聲의 一面을 言語의 形式的 材料라 한다. 그러므로, 思想의 內容을 가지지 못한 「에이머어」나 「에에히어」 따위가 말이 되지 못하며 말의 形式을 갖추지 못한 병어리의 속 에 있는 思想이 말이 되지 못한다.

b. 表音文字와 그 批評

表音文字란 것은 言語의 形式的 材料인 音聲(註二)을 本位로 삼아 지어서 말의 音聲을 벌리어 적으면 單語가 間接으로 表記되게 된 文字다. (註三)

그런데 그 中에서 日本의 假名와 같이 音節를 單位로 삼아 지은 文字를 音節文字라 이르고 歐文 알파베트의 大部分과 우리 한글의 全部와 같이 音素——音의 成分——를 單位로 삼아 지은 文字를 音素文字라 이른다.

이 文字들 곧 表音文字들은 그 文字의 數갯가 꼭 적어서, 배우기에 그리 많은 時間이 걸리지 않고, 또는, 무슨 말에나 自由自在로 들러쓰기 좋은 長處가 있다. 特히 그 中에도 音素文字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文字들은, 概念의 直接 符號가 아니고 다만 소리의 符號므로, 이것을 읽을 때엔 눈으로 보기만 하고서는 곧 거기에 들어있는 뜻을 생각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그 文字에 約定된 소리를 생각하고 다시 그 소리에 約定된 여러 單語를 생각한 뒤에 또 다시 그 우알에 있는 말과 습하여 말의 境遇를 생각해 본 뒤에야 비로소 그 뜻을 알게 된다. 이를테면,

「ハシヲワタル」라는 글을 읽을 때에, ハシ라는 글의 뜻을 알자면, 먼저, ハ에 約定된 소리와 シ에 約定된 소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ハシ라는 소리에 約定된 뜻인 「河川에 가루 놓인, 사람 건너 다니는 物件」과 또 「食物을 먹을 때에 쓰는 두 가지의 나무 쪼가리」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그 알에 있는 ワタル라는 말과 습하여 읽는 同時에, ワタル를 亦是 ハシ에서와 같은 모든 思惟의 經過를 거치어 생각한 뒤에 비로소 그 全文의 뜻을 判斷케 된다. 그리고 또,

「다리가아프다」라는 글을 읽을 때에도, 다리라는 글의 뜻을 알자면, 먼저, 다 ㅌ ㄷ ㅍ 들에 各各 約定된 소리의 成分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리히는 소리에 約定된 뜻인 「설매에 몸뚱이를 支持하여 주는 身體의 一部」와 또는 「河川에 가루 놓인, 사람 건너다니는 物件」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그 알에 있는 아프다라는 말과 습하여 읽는 同時에, 아프다를 亦是 다리에서와 같은 모든 思惟의 經過를 거치어 생각하여 본 뒤에야 비로소 그 全文의 뜻을 判斷케 된다. (但, 우알에 있는 말과 습하여 본 뒤에야 그 뜻을 判斷케 되는 境遇인 것은 한 소리에 約定된 뜻이 여럿인 境遇에 限하여서만 그러한 것이니 이것은 文字의 缺点이 아니라 말의 缺点이다. 그러나, 表意文字에 한 文字로 두세가지의 뜻을 符號한 것 따위는 文字制定의 잘못이다.)

그러므로 이 表音文字들은, 읽는 데에 時間과 努力이 많이 걸리어서, 讀書의 能率을 꼭 낮게 하는 缺点이 있다. 同時에, 이것은 文化 開發의 重大한 關係가 있다.

(註二). (註一)를 보라.

(註三). ㅁ字로, 「입술을 다물었다가 코를 울리며 입을 벌리어 되는 소리」를 적고, ㅂ字로, 「입술을 다물었다가 코를 울리며 혀끝을 前上方으로 내밀며 입을 예사로 벌리어 되는 소리」를 적어서 이 두 소리 곧 ㅁ하는 소

것과 같은 때이다。

그러나 이 語尾變化說은 單語綴의 表意化를 到底히 할 수 없으나 그것은,

가르며

가락서

갖고

이와 같이 그 語綴의 形狀이 이러저러 變하므로 示覺을 眩亂케 하는 同時에 全體의 文意를 대어 보기 前에는 얼른 보고는 그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까닭이다。따라서 表音文字로서의 短點이 如前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또는 어떠한 綴字法과 어떠한 文法을 取하여야 表意化의 目的을 이룰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 表意化의 方法을 얻기 爲하여 우선 모든 種類의 綴字法을 들어 批評하여 보자。

綴字法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나 任意的 綴字法, 古典的 綴字法, 科學的 綴字法들이 곳 그것이다。

a. 任意的 綴字法과 그 批評

任意的 綴字法이란 것은 各個人이 글을 쓸 때마다 自己의 생각나는 그대로 이무려 케나 음만 맞후어 쓰는 綴字法을 이룸이니 이것은 가장 原始的인 發達되지 못한 初步的 綴法이다。이들러면 「사람을」이란 말을,

사람을

살았을

살아를

사라를

이와 같이 여러가지로 사람마다가 쓸 때마다 自由로 소리 나는대로 쓰는 따위의 것이 다。

이 綴字法은 ㄱ ㄴ ㄷ.....들과 ㅏ ㅑ.....들의 音素符號만 개치면 누구든지 어떤 말이나 다 맞후어 表記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에 가장 쉬운 長處가 있다。

그러나 單語를 表記한 글씨뭉치의 形狀이 여러가지로 變하여 一定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보기만 하고도 뜻을 通하도록 表意化할 수가 없으며, 받드시, 읽어서 소리를 들은 뒤에야 겨우 그 뜻을 짐작하게 된다。그래서 讀書하기에 더욱 時間과 努力이 많이 드는 缺點이 크다。

b. 古典的 綴字法과 그 批評

古典的 綴字法이란것은 古代 文獻에 있는 綴字를 標準하여 쓰는 綴字法을 이룸이다。

이 綴字法은 朝鮮에 있어서는 거의 잇을 수가 없으니,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의 古 文獻에 잇는 綴字法은, 거의가 任意的 綴字法이기 때문에, 一定한 標準을 잡을 수가 없는 까닭이다。

그리고 이 綴字法엔 重大한 缺點이 있다。그것은 곳, 音韻의 變遷을 따라 古語의 音과 今語의 音과가 서무 달러진 것이 많은 까닭에, 現今語의 發音을 古語의 發音으로 變하기 前에는 그것을 現今語의 音대로 읽자면, 받드시, 死音(Silence)을 두기도 하고 한

글씨에 規則없이 여러 音을 두기도 하여야 되게 되어서, 배우기에 크게 困難한 것이다. 이를테면,

「뿌리, 꽃, 물」이란 말들을 龍飛御天歌에 있는 綴字를 標準하여,

「불휘, 꽃, 물」들과 같이 表記한다 하면 다른 境遇에는 ㅂ이나 후를 다 本音대로 읽으면서도, 여기에서만은 「불휘」의

ㅂ은 ㅃ으로,

후는 死音으로

읽어야 불휘——→뿔이——→뿌리로 읽어질 것이고, 또 다른 境遇에서는 ㄱ과 ㅈ을 다 本音대로 읽으면서도, 여기에서만은 「꽃」의

ㄱ은 ㅋ으로,

ㅈ은 ㅉ으로

읽어야 꽃——→꽃으로 읽을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境遇에서는 ㅡ를 本音대로 읽으면서도, 여기에서만은 「물」의 ㅡ는 ㅍ로 읽어야 물——→물로, 읽을 수 있게 되는 따위와 같다.

그리고 漢字音에 있어서도, 歷史的 表記法은 現수의 實際 口音과 달라서 學習에 重大한 不便을 주게 된다. 이를테면, 「天地」를 ㄷ으로 쓴다면,

ㄷ은 ㅌ으로

ㄷ은 ㅌ으로

變하여 읽어야 ㄷ——→천지로 읽을 수 있게 되는 따위와 같다.

그러나, 이 古典的 綴字法은, 單語綴의 形狀이 一定하여서, 表意化되는 長處가 있다. 古典的 綴字法으로 世界의 代表가 되는 英語綴은 死音(Silence)이 많고 또 한 字母의 音을 여러가지로 發音하여 이것을 배우는 이에게 많은 苦痛을 주지만 한번 배워만 놓으면 讀書엔 여간 能率이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글의 單語綴보다도 英語의 그것이 얼른 눈에 들어온다 할은 實로 이 까닭이다.

c. 科學的 綴字法과 그 批評

科學的 綴字法이란 것은 聲音學과 文法學에 根據하여 一定한 標準을 세우는 가장 進歩된 合理的인 綴字法을 이른다. 이 綴字法은 各個人이 自由로 쓰는 任意的 綴字法보다는 勿論 배우기가 좀 어렵다. 아니, 어렵다는이보다 어느 程度의 教養을 要한다.

그러나 語綴의 形狀이 여러가지로 變하는 弊端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表意化하기 쉽고 또는 古典的 綴字法처럼 發音의 不規則이 없을 뿐만 아니라, 音理와 語法의 整然한 條理를 따라 聞一知十할만한 規則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에도 그리 別로 어렵지 않은 長處가 있다. 卽 이 綴字法은, 배우기 쉬운 表音文字의 長處를 維持하면서도, 單語綴을 보기 쉽게 表意化할 수 있는 長處가 있다.

그러나, 이 綴字法에 對하여 우리가 한가지 注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있다. 그것은 꽃, 綴字의 方式이 縱으로나 橫으로나 한가지로 定하여지지 않고 우리글의 綴字式과 같이 縱橫을 兼하여 된 綴字式에 있어서 同一한 科學的 綴字法을 쓴다 하더라도, 文法의 如何를 따라 單語綴의 表意化가 되게 될 수도 있고 안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單語의 語法上 關係의 說明에, 語尾變化說를 取하면,

가르며
가라서
가리
갖고
가리라

들과 같이 單語의 形狀이 늘 變하여 이것을 表意化할 수가 없게 되고, 또, 添加語說을 取하면,

같이며
같이서
같이
같이
같이러

들과 같이 單語의 形狀이 늘 固定되어 表意化하기가 容易한 따위다.

四. 理論의 歸結

그러므로 우리는 以上에 말한 모든 利害를 따진 結果에,

첫째, 文字의 本質에 根據하여 배우기 쉬운 表音文字에다가 表意文字에서 얻는 것과 같은 읽기에 便利와 實益이 있는 方法을 베풀어 表音文字의 單語綴을 表意化하는 同時에,

둘째, 이에 適應한 聯鎖的 方法으로, 綴字法과 文法學의 性質에 依하여, 科學的 綴字法에 添加語說의 文法을 取하지 않으면 안될 事實을 發見케 된 것이다. —(未完)—

(以下二三五頁에서續) 古代歌謠集도 있으며純祖때엔 柳禧 같은 有數한 學者가 있어 諺文誌며 物名考를 著作하였고, 南益薰 같은이 있는 有名한 小說인 玉樓夢을 지었으며, 光武皇帝 때 와서는 姜瑋의 擬定國文字母分解도 있으며, 佛人 쿠란의 韓佛字典이 있으니 이것이 우리말 辭典으로는 처음인 것이라하겠습니니다。지금부터 五十年 前의 일입니다。그 뒤에 또 英人 깨일의 韓英字典이 있습니다。이런 것을 우리의 손으로서 일찍이 맨들어서 놓지 못한 것이 우리로는 꼭 섭섭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글運動에 유공하든 이들 다시 들어 말하면 婦女들입니다。그들의 편지며 모든 記錄이며 읽는 글이며 벗이 곳 이 한글입니다。그러므로 하여 종래의 小說이 數百餘나 되고, 支那의 名詩 名文으로도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지금도 어느 地方에서는 出嫁하는 따님에게 반드시 노래나 이야기冊 몇몇권은 주는일이 있습니다。파연 한글頒布한뒤 四百八十餘年을오며 그 運動의 重鎖이 된 것이고 또는 漢語, 倭語, 蒙古語, 滿洲語 따위의 譯學을 하든 이들입니다。말과 말을 對譯도 하고 그 發音法도 적고 하여 한글을 많이 쓰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 宗教——佛敎, 道敎, 基督敎들입니다。佛敎와 道敎도 功勞가 적지않지만 이 近來에는 基督敎의 功勞가 가장 많습니다。오늘날 京鄕을 물론하고 多數히 한글을 개치게 된 것은 물론 그 힘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여기에 그치겠습니다。요마적 우리가 하는 한글運動은 말하지 않고。

한글의 經過

李秉岐

—이는 今年 十月 二十九日저녁, 明月齋本館에서 한글紀念式을 할때에 말하든것—

한글의 經過는 한글 頒布한 때로부터 그 文獻을 中心하여 말하되 먼저, 世宗大王의 聖德과 業蹟에, 그 다음에는 한글 創造의 動機와 그 經過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世宗大王은 本朝 太宗의 셋째 아드님으로서 太祖 六年 丁丑 四月 十日(五三五年前)에 漢陽 潛邸에서 誕生하시어 열한살에 忠寧君, 열다섯에 忠寧大君, 시물들에 世子가 되시었습니다.

그때 世子禔(太宗의 큰아드님)이 失德한 일이 많아서 하로는 여러 臣下들이 朝廷에 모여 그를 廢하기를 청하며 太宗은 禔의 큰아들을 세우려 하거늘 여러 臣下들이 말하되 『殿下께서 世子를 가르치심이 지극하오신데도 이리하옵거든 이제 어린 손자님을 세우시면 이 뒤날의 일을 어찌 아오리까. 더구나 아비를 廢하고 아들을 세우면 그의 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청컨대 어진이를 택하여 세웁소서』 한즉 太宗은 『卿들이 택하여 말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 臣下들이 『아드님 아시기는 君父만 못하오니 택하심이 聖心에 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야 太宗이 『忠寧은 天性이 聰敏하고 學問을 좋아하여 아무리 치운 때나 덕운 때라도 밤을 새우며 글을 읽고 또한 다스리는 道理를 잘 알으니 내, 世子를 삼을가 하노라』 말씀하고 여러 臣下들도 어진이를 택하십소서 한 것도 忠寧을 가리침이라 하고 모다 稱賀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시물셋 되시든 해에 禪位를 받으시었습니다.——太宗은 在位한 十餘年 동안 을 두고 天災와 地變이 끊이지 아니 이를 不德한 탓이라 하여 傳位를 한 것입니다.

世宗께서는 三十二年 동안을 在位하셨고 五十四歲에 昇遐하셨는데, 內治, 外交, 文武 百度에 精勵하셨습니다. 集賢殿을 두어 人材를 기르고 農事直說로 하여 產業을 勸獎하고 三綱行實로 하여 紀綱을 세우고 賢相으로는 黃喜, 許稠, 孟思誠이 있고 文學은 鄭麟趾, 崔恒, 成三問들이 있고 天文은 金墩, 音樂은 朴堧, 工藝는 蔣英實, 軍事는 金宗瑞가 있어 對馬島 討伐, 四郡 設置, 六鎮 開拓까지 하게하여 이러한 事蹟을 적어놓은 實錄이 一百五十四冊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實錄란으로도 本朝 歷代의 實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 중에도 더욱 놀라운 것은 물론 이 한글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 글은 온 세계의 文學 가운데 가장 용하게, 좋게, 쉽게 된 글이외다. 우리나라 남들이 다 가치 더할나위 없이 기리는 글이외다. 곳, 우리의 큰 보배요, 큰 자랑거립니다. 하므로, 우리는 한글 하나만으로도 世宗大王을 거룩하고 고맙게 아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일 世宗大王께서 한글을 아니 만들어내셨드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글도 없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은 기쁜날도 없을 것이 아닙니까.

한글 한글을 맨드신 動機는 訓民正音序와 같이 우리는 漢文으로는 쓸 수 없다. 우리

는 우리글이 있어야 한다。漢文은 어렵다。우리글은 쉬워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 외다。漢文 말고도 吏讀文 같은 것이 잇기는 있으나, 그도 마땅하지 못하여 아주 우리 말을 적기에 훌륭한 이와 같은 소리글(音標文字)를 지으신 것이외다。이 글을 지으실 때, 물론 漢字, 梵書, 蒙古文字 같은 따위도 參考야 하겠지만 그걸 곧 模倣한 것은 아니외다。日本 學界의 權威인 白鳥博士 같은이도 이 한글은 아무대서도 模倣한 것이 아니고, 純然히 世宗大王의 獨創한 것이라고 합니다。우리가 이렇게 느끼느니만큼 과연 世宗大王께서도 이 글을 지으시든 그 苦心과 努力이야 여뵈하셨으리까。하루나 이틀, 또는 한달이나 두달로 하여 될것이 아니라 적어도 열해나 스므해만은 긴 동안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宮中에 正音廳을 두고 集賢殿 學士들과 의논도 하시고 또는 明學士 黃瓚에게 音韻에 대한 問議를 하러 成三間으로 하여 遼東을 열세번이나 가오게 하고 이사로 계실 때도 두손을 걸어잡고 한가히 앉아서 본 적이 없었다 하심을 밀우어 보아도 넉넉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한글을 다 맨드시기는 世宗 二十五年 癸亥 十二月이 었으나 오히려 미비한 끝이 잇을가 하여 더 두고 보시다가 마침내 二十八年 丙寅(四八六年前) 九月에 와서야 頒布한 것입니다。이것이 곧, 訓民正音입니다。

그러나 이 頒布하는 것을 펴 反對하는 이가 잇었습니다。副提學 崔萬理, 直提學 辛頌祖, 直殿 金汝, 應教 鄭昌孫, 副校理 河緯地, 副修撰 宋處儉, 著作郎 趙瑾 따위가 곧 그들인데 모다 義禁府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에야 내놓았고, 鄭昌孫은 罷免까지 시켰다 합니다。

다만 그 反對하는 理由는 이러합니다。

諺文은 文字(漢文)와는 아주 曄曄으로 되어가지고 委巷俚語만을 쓰는 것이라고

한데, 頒布한 뒤로는 펴 獎勵하여 公文書에도 다 쓰게 하고 吏曹의 吏科와 吏典을 取才할 때에도 이것으로서 試驗을 보게 하였습니다。그러하여 官人 金得祥은 臺諫의 잘못함을 이 글로 적어가지고 義禁府, 承政院에 보이든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撰述과 翻譯 따위를 浬장하게 하였습니다。말하자면, 祖宗(穆宗, 翼祖, 桓祖, 太祖, 太宗)의 頌德을 하고저 權踞, 鄭麟趾, 安止, 朴彭年, 姜希顔, 申叔舟, 李賢光, 成三間, 李埏, 辛永孫, 崔恒들을 시켜 龍飛御天歌를 짓고 昭憲王后(世宗大王后妃)를 追悼하여 首陽君을 시켜 月印千江之曲을 짓게하고 金汝, 金鈞로 하여 書諺解, 崔恒으로 하여 東國正韻과 洪武正韻, 申叔舟로 하여 四聲通攷를 撰하게 하고, 證道謨南明繼頌은 親히 三千餘首를 翻譯하시고 또 그 뒤에 여러가지 佛經을 翻譯한 것도 오로지 世宗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중, 龍飛御天歌는 한글 頒布하든 그 전해——世宗 二十七年에 시작한 것이고 또 三綱行實 같은 冊은 世宗 十四年에 刊行한 것인데, 그 欄格 위에 벌서 한글로 翻譯하여 적힌 것이 잇으니, 이는 그 뒤 成宗 때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

×

世祖는 그 조카 端宗의 位를 篡奪함으로써 말을 많이 들어도 그 業蹟으로는 그 아버지 世宗보다도 못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이 한글에 대하여는 놀라운 功勞가 있습니다。月印千江之曲과 같은 한글 文獻 가운데 가장 소중한 巨帙의 冊을 親히 맨드시되

그때, 高僧이요 碩學인 信眉, 守眉, 雪峻, 弘濟, 曉雲, 智海, 海超, 斯智, 學悅, 學祖, 金守溫들을 머물고 議定하여 世祖 四年에야 初刊을 하였습니다。

世祖 七年에는 刊經都監을 두고 楞嚴經, 妙法蓮華經, 阿彌陀經, 圓覺經, 金剛心經, 六祖解金剛經, 永壽集 따위의 佛敎經典들을 번역하였는데, 이 冊들은 지금도 다 남아있으며, 또 그밖에 武經七書諺解며 初學字會도 잇었다 합니다。

그리고 成宗 때에도 撰述, 또는 翻譯한 것이 꼭 많으니 內訓 같은 冊은 成宗 六年에 仁粹大妃(德宗后妃昭惠王后 韓氏)가 親히 지은 것이고, 五大眞言은 親히 번역한 것이며 世宗 때부터 시작하여오든 金剛經 三家解와 證道謨南明繼頌도 이때에야 번역이 다 되어 刊行하였으며 杜詩諺解는 曹緯, 柳允謙, 義砧들로 하여 번역하였는데, 위에 말한 世宗, 世祖 대의 刊行된 冊들은 모다 訓民正音과 같은 體制의 木刻板으로 박은 것이지만, 이때 金剛經三家解, 證道謨南明繼頌, 杜詩諺解들은 모다 鑄字로서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字法, 語法, 또는 四聲表를 찍은 것이라든지는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와서 한글 鑄字를 썼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뿐더러 또 徐居正, 盧思愼, 許琮, 魚世謙, 柳洵, 柳允謙들로 하여 聯珠詩格과 黃山谷詩集을 번역한 것이 있으며, 柳崇朝라는 巨儒를 시켜 七書諺解를 만들었습니다. 七書諺解는 이때에 비롯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鄉藥集成方이라든지 樂學軌範 같은 貴重한 冊도 이때 刊行되었습니다。

×

×

이러케 성하든 한글運動이 燕山朝에 이르러는 아주 비운이 들었습니다. 그 까닭을 말하자면 그때 宮中의 秘事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成宗이 恭惠王后 韓氏를 여히고 淑儀 尹氏가 元子(燕山君)을 낳으니 妃를 삼었는데 尹氏가 너무 寵愛함을 받고 방자하여, 成宗의 가까이 하는 內人 嚴氏, 鄭氏에게 嫉妬가 심하여 成宗에게도 꼭 不恭하다가 하로는 成宗의 얼굴에 손톱자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仁粹大妃(成宗母后)가 아시고 震怒하여, 大臣 尹弼商等을 불러 의논하고 廢妃하여, 私第로 내보냈는데, 成宗이 때때로 한글로서 그 허물을 적어 中官과 承旨를 尹氏에게 보내어 읽혀 들리고 그 改過하기를 바랐으나 尹氏는 마침내 改過를 못하고, 죽을 때 藥을 마하여 그 입잇든 白錦衫를 덕레고 그 적삼을 그 어미 申氏에게 벗어주며 自己의 아들이 鎔금이 되거든 드리라 하더니 과연 燕山主가 嗣位하자 그 적삼을 드리매 그걸 안고 아침 저녁으로 울고 그때 承旨들은 다 죽이는데, 蔡壽라 하는이는 諺文을 모른다 하여 아니 죽었으며, 또한 그 어머니가 非命에 죽었다 하고 그때 廢妃 의논에 참여한 이거나 그 인척이 되는 이들이면 모다 죽이고 이미 죽은이면 부관참시도 하고 뼈를 부셔 바람에 날리기도 하였으며 한번은 어떤이가 燕山主의 淫虐한 것을 諺文으로 적어 街路에 붙였는데, 이진 그때 被罪한 자의 親黨의 소위라 하고 귀양간 이들을 잡아다 慘刑을 하고 또 諺文을 못배우게 禁하였습니다. 그 諺文을 禁하든 傳敎를 보면 이러합니다——諺文을 쓰는놈은 制書를 棄毀律로 하여 곧 斬하고 알고도 告하지 않는놈은 制違反律로 하여 酷刑을 한다고. 이러하여 집집마다 두엇든 諺文과 口訣冊은 모다 불사르고 다만 漢語翻譯과 같은 諺文만은 그대로 두게 하였습니다。

×

×

그러다가 中宗 元年에 이르러서는 諺文廳까지 革廢하고 겨우 成宗의 뜻을 받아 「崇

儉節用」의 傳敎를 한글로 번역하여 婦人과 小子까지라도 알리게 하고 金安國으로 하여 呂氏鄉約, 正俗, 農書, 蠶書, 二倫行實, 三綱行實, 續三綱行實, 瘡疹方, 癘瘟方 따위를 번역하여 퍼트리고 劉向烈女傳諺解를 禮曹시켜 刊行하게 하였고, 永嘉集再刊도 되었으나 이때 가장 볼만한 것은 崔世珍의 지은 四聲通解며 訓蒙字會며 朴通事諺解며 吏文輯覽 따릅니다. 지금에 行用하는 諺文 反切이라는 것도 이 訓蒙字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訓民正音의 規例와는 다르게 된 것이 많습니다. 한 興味있는 研究者 거러입니다.

이때에는 한글作家(時調作家)도 많고 그중, 黃眞伊 같은 놀라운 天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明宗 때에는 阿彌陀經諺解가 重刊되고 救荒撮要가 刊行될 뿐이고 宣朝 때에는 月印千江之曲의 第一 第二가 小伯山池叱方寺에서 重刊되었는데, 첫머리에 訓民正音이 붙여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貴重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는 儒臣을 지켜 七書諺解를 만들고 家禮諺解니 昭產集諺解니 하는 것도 刊行하고 時調作家는 이때가 가장 많은데, 그중 代表로 붙이는 林悌, 李滉, 鄭澈들입니다. 鄭澈의 것으로는 松江歌辭라는 冊이 刊行되어 있습니다.

仁祖때부터는 좀 나아가는 모양입니다. 없어도 杜詩諺解를 嶺南에서 吳翮과 金尙宥이 重刊를 하였으며, 李曙같은 이는 武官으로서 馬經諺解를 번역하였으며, 五倫歌譯을撰하고 經書諺解를 各道에 頒布하였으며, 金堉는 種德新編諺解를 만들었으며 崔岵의 諺文口訣한 南華經을 刊行하였으며, 俗語와 語源를 말한 洪萬宗의 旬五志가 있으며, 時調作家로는 尹善道, 申欽과 같은 優秀한 이도 있으며, 尹善道の 歌詞集으로 孤山別集까지 刊行되어 있습니다.

孝宗 때엔 尹善道の 影響을 받아 孝宗大王 당신도 時調作家이었지만 다만 金正國으로 하여 警民編諺解를 내었을 뿐이고, 顯宗 때엔 栗谷原稿로 하여 小學諺解를 改訂할 뿐이고, 肅宗 때에는 朴通事諺解를 重刊하고, 妙香山 普賢寺에서 眞言集을 刊行하고 金萬重의 九雲夢, 金春澤의 謝氏南征記, 肅宗后妃 閔氏의 仁顯王后德行錄 같은 小說이 著作되고, 金天澤은 捕校로서 靑丘永言, 金壽長은 騎省書吏로서 海東歌謠 같은 莫大한 歌詞集을 編撰하고 이때 時調作家도 제법 많은 가운데 金壽長, 金天澤이 가장 나옵니다.

英祖 때에도 七書諺解니 唐本女四書諺解니 訓義小學이니 御製常訓諺解니 御製訓音諺解니 闡義昭鑑諺解니 하는 것이 있으나, 特別히 들어 말할 것은 申景濬의 訓民正音圖解와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考, 華東叶音通釋과 洪啓積의 三韻聲彙요, 또는 新老乞大諺解와 三譯總解입니다. 이는 漢字研究에 좋은 材料들이 됩니다. 그리고, 李庭綽이 玉麟夢이라는 小說을 지은 것도 이때인듯 한데 이 小說은 支那人에게 構想이 훌륭하다는 評까지 받은 것입니다.

正祖 때에는 五倫行實, 明義錄諺解, 續明義錄諺解, 增修無冤諺解, 武藝圖譜通志諺解, 兵營指南諺解 綸音諺解 따위가 있고 宮廷文學의 代表될만한 恩悼世子妃 洪氏가 지은 恨中錄이 있고, 語彙集으로는 李成之의 才物譜며 李學遠, 李德懋, 丁若鏞의 物名考가 있고 語源學으로는 丁若鏞의 雅言覺非며 黃胤錫의 願齋遺稿가 있고 語學書類로는 李義鳳의 古今釋林이 있고 韻書로는 奎章全韻이 있고 樂章歌詞 같은 (以下二三一頁로續) -

한글 研究 材料의 文獻

金 允 經

研究의 材料라 하면 자못 온갖 書類를 다 包含하게 되어 限이 없습니다。言語와 文字의 發達과 變遷을 研究하려고 하면 各 時代마다 記述된 文獻 全體를 參考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그러한 故로 外國語學의 書類라도 對譯되어 있는 것이면 各 各 그 時代의 言語, 文字, 發育들의 變遷을 研究하기에 必要한 參考가 되는 것은 勿論입니다。그러한 故로 朝鮮의 正音 文獻뿐 아니라, 正音과 對譯된 여러 外國語 書類도 正音 研究의 材料가 되는 것입니다。또 이 밖에 間接의 參考 材料가 되는 것은 限이 없는 것입니다。여기에는 直接 材料를 中心삼아 重要한 것만을 朝鮮語 本位의部, 支那語 本位의部, 蒙古語 本位의部, 女真語 本位의部, 滿洲語 本位의部, 日本語 本位의部로 나누어서 紹介하고 또 最近의 雜誌와 新聞紙上에 發表된 研究 論文들을 추리어서 紹介하여 두려합니다。

第一部 朝鮮語 本位의 書類

第一類 語法과 會話의 書類

| | | |
|---------------|---|------|
| 訓民正音 | 世宗二十八年(西紀一四四六) | 世宗御製 |
| 訓民正音圖解 | 英祖四十六年(西紀一七七〇) | 申景濬 |
| 經世正音圖說 | 英祖朝(西紀一七二五——一七七六) | 洪良浩 |
| 諺文志 | 純祖二十四年(西紀一八二四) | 柳億 |
| 擬定國文字母分解 | 高宗六年(西紀一八六九) | 姜瑋 |
| 正音宗訓 | 高宗光武十年(西紀一九〇六) | 權貞善 |
| 大韓文典 | 隆熙二年(西紀一九〇八)六月 | 崔光玉 |
| 國語文典音學 | 隆熙二年 十一月 六日 | 周時經 |
| 初等國語語典 一卷 二卷 | 隆熙三年 二月 (全四年 二月八日 改正再版) | 金熙祥 |
| 初等國語語典 三卷 | 隆熙三年 三月 二十日 | 金熙祥 |
| 大韓文典 | 隆熙三年 二月 十八日 | 俞吉濬 |
| 國語文法 | 隆熙四年 四月 十五日 | 周時經 |
| 朝鮮語文法 | 大正二年 九月 二十七日 再版(上書의 改題) | 周時經 |
| 朝鮮語典 | 明治 四十四年 (西紀 一九一一) 十月 十五日 | 金熙祥 |
| 말의소리 | 大正 三年 (西紀 一九一四) 四月 十三日 | 周時經 |
| 조선말본 | 大正 五年 (西紀 一九一六) 四月 十三日 | 金料奉 |
| 김의 조선말본 | 右의 「조선말본」을 八年後에 (一九二二) 上海에서 增補訂正하여 出版한것 | 金料奉 |
| 朝鮮語의先生 (會話文法) | 大正 七年 (西紀 一九一八) 七月 | 崔在翊 |
| 現今 朝鮮文典 | 大正 九年 七月 十二日 (全 十年 二月, 全 十一年 一月, 全 十二年 三月 四版) | 李奎榮 |

| | | |
|--|--------------------------------------|----------------------|
| 鮮文通解 | 大正 十一年 六月 三十日 | 李 弼 秀 |
| 朝鮮文法 | 大正 六年 一月 二十日 | 安 廓 |
| 朝鮮語文法提要 | 大正 十年 三月 三十日 | 姜 邁 |
| 新撰朝鮮語法 | 大正 十一年 八月 十五日 | 李 奎 昉 |
| 朝鮮語文經緯(讀本) | 大正 十二年 五月 二十五日 | 權 憲 奎 |
| 朝鮮正音文典 | 大正 十一年 四月 十八日 (全十五年 四月 二十日 二日 再版) | 金 元 祐 |
| 朝鮮文直解 | 大正 十四年 十一月 二十日 | 李 震 桓 |
| 朝鮮語文法 | 大正 十四年 十二月 二十八日 | 李 常 春 |
| 글에 對한 問答 | 大正 十四年 三月 三十日 | 金 重 綠 |
| 잘 읽은 조선 말과 글의 본 | 大正 十四年 五月 十八日 | { 姜 邁 浩 金 鎮 浩 |
| 우리 글 들 | 昭和 二年 四月 五日 | 金 熙 祥 |
| 朝鮮語綴字法講座 | 昭和 五年(西紀 一九三〇)八月 五日 | 張 志 暎 |
| 우리 말 본 第一卷 | 昭和 四年 四月 十三日 | 崔 鉉 培 |
| 品詞分類論(延禧專門校版「朝鮮語文研究」中) | 昭和 五年 十二月 一日 | 崔 鉉 培 |
| 한글 綴字法 一覽表(「文藝讀本 上卷」附錄) | 昭和 六年 五月 五日 | 李 允 宰 |
| 中等教科朝鮮語文典 | 昭和 四年 一月 二十三日 | 李 完 應 |
| 精選朝鮮語文法 | 昭和 五年 一月 十五日 | 未 祥 |
| 조선 말 본(表解) (「培花」 第四號中) | 昭和 七年 七月 十三日 | 金 允 經 |
| 朝鮮語學講義要旨 | 昭和 六年(西紀 一九三一)七月 三十日 | 朴 勝 彬 |
| ~~~~~ | | |
| 交隣須知 | | 雨 森 芳 洲 |
| 日韓通話 (附日韓訓 千字文) | 明治 二十六年(西紀 一八九三)九月 | 國 分 國 夫 |
| 校訂交隣須知 | 明治 三十七年(西紀 一九〇四)二月 | { 前 間 共 作 藤 波 義 貫 |
| 獨學韓語大成 | 明治 三十八年 八月 | 伊 藤 伊 吉 |
| 獨習新案日韓對話 | 明治 三十九年 八月 | 日語雜誌社 |
| 韓語通 | 明治 四十二年 五月 十八日 | 前 間 恭 作 |
| 韓語文典 | 明治 四十二年 六月 二十三日 | 高 橋 亨 |
| 韓語研究法 | 明治 四十二年 十月 十五日 | 藥 師 寺 知 隴 |
| 日韓兩國語同系論 | 明治 四十三年 | 金 澤 庄 三 郎 |
| (이 밖 에 도 宮 崎, 白 鳥 氏 등 의 兩 語 比 較 研 究 의 論 文 이 各 雜 誌 에 보 임) | | |
| 朝鮮語法及會話書 | 大正 六年(西紀 一九一七)六月 十五日 | 朝鮮總督府 |
| 日鮮會話精通 | 大正 六年 十一月 | 西 村 真 太 郎 |
| 鮮語階梯 | 大正 七年 七月 三日 | 朝鮮總督府 |
| 語法會話朝鮮語大成 | 昭和 三年 四月 二十八日 | 奧 山 仙 三 |
| 朝鮮語學史 | 大正 九年 十一月 二十五日 | 小 倉 進 平 |
| 現行朝鮮語法 | 昭和 元年 十二月 二十五日 | 鄭 國 采 |
| 國語及朝鮮語のため | 大正 九年 十二月 十五日 | 小 倉 進 平 |

| | | |
|--------------|----------------------------|-------|
| 應用自在朝鮮語法詳解 | 大正 十三年 二月 二十五日 | 魯 璣 柱 |
| 南部朝鮮の方言 | 大正 十三年 三月 二十八日 | 小倉進平 |
| 朝鮮語發音及文法 | 大正 十五年 四月 三日 | 李 宗 應 |
| 國語及朝鮮語發音概說 | 大正 十二年 十二月 二十九日 | 小倉進平 |
| 最新朝鮮語會話辭典 | 大正 十四年 六月 二十五日 | 山本正誠 |
| 平安南北道の方言 | 昭和 四年 三月 二十五日 | 小倉進平 |
| 咸鏡南道及び黃海道の方言 | 昭和 五年 四月 十五日 | 小倉進平 |
| 鄉歌及吏讀の研究 | 昭和 四年 三月 十五日 (全年 七月 一日 再版) | 小倉進平 |

Aston, A Comparative Study of the Japanese and Korean Language. 1879. (아스톤 「日韓語比較研究」)

Grammaire Coreenne. Dar les Missionnaires de Coree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1881. (佛國宣教師「韓語文典」)

Underwood.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1stEd. 1889. 2ndEd. 1914. (언더우드 「韓英文法」)

James S. Gale. Korean Grammatical Forms. 1stEd. 1893, 2nd Ed. 1903. (게일 「辭課指南」)

James Scott, Corean manual or Phrase book with in troductory grammar. 1st Ed. 1887. 2nd Ed 1893. (젠크스·스코트 「언문말책」)

Imbalt-Huart, Manual de la langue Coreenne. 1889.

Annie L. A. Baird, Fibty helps for the beginner in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1896.

Andreas Eckardt, Koreanische Konversations-Grammatik. 1923.

(에갈트著 「朝鮮交際文典」)

第二類 諺解書類

이 諺解란 말은 支那 經典이나 其他 書籍을 句讀에 吐(도)를 달고, 또, 繙譯하고 解釋을 이룸이외다。그러하면, 다른 國語의 書籍이라도 이 같이 한 것이면 諺解라고 할만하지마는 特히 支那語 書籍에만 이 같이 쓰이는 것은 역시 一種의 慕華自蔑의 意味가 包含된 것입니다

| | | |
|--------|--|------------------|
| 龍飛御天歌 | 世宗 二十七年(西紀一四四五)四月 五日 | 權 暉. 鄭麟趾. 安止等奉命撰 |
| (四書諺解) | 世宗 三十年(西紀一四四八)三月 | 集賢殿奉命撰 |
| 經書音解 | 世宗朝(西紀一四一九——一四五〇) | 儒臣奉命撰 |
| 童子習 | 世宗末年(?) | 申叔舟等奉命撰 |
| 月印千江之曲 | 世宗二十九年(西紀一四四七)七月二十五日(世祖四年 _{年刊出}) | 世祖奉命撰 |
| 初學字會 | 世祖四年 乙卯 西紀一四五九) | 金鈞等十二人奉命撰 |
| 法華經 | 世祖八年癸未(西紀一四六三)九月丁巳朔戊午 | 刊經都監 |
| 圓覺經 | 世祖十年 乙酉(西紀一四六五)三月 | 孝寧大君奉命撰 |
| 金剛經 | 全 年 | 金守溫等奉命撰 |
| (釋嚴經) | 世祖朝(西紀一四五六——一四六八) | |

| | | |
|------------------------------|--|-----------------|
| (永嘉集) | 全 | |
| 地藝藏經 | 全(?) 宣祖二年(西紀一五六九) | 雙溪寺重刊 |
| (明皇戒鑑(諺解)) | 成宗八年(西紀一四七七)丁酉 | |
| 杜詩諺解 | 成宗十二年 辛丑 <small>(이 권傳하는 것들은 仁祖十年重刊本)</small> | 曹 偉 |
| 聯珠詩格 | 成宗十四年 癸卯 七月 | 徐居正等六人 |
| 黃山谷詩集 | 全年 全月 | 全 人 |
| 鄉藥集成方 | 成宗十九年 戊申 九月 | 命 撰 |
| 二倫行實 | 中宗十二年 丁丑(西紀一五一七) | 曹 伸 |
| 劉向烈女傳諺解 | 中宗三十八年 癸卯(西紀一五四三) | 申瑛·柳沆奉命譯 |
| 七書諺解 | 中宗朝(西紀一五〇六——一五四四) | 柳 崇 祖 |
| 續三綱行實 | 全 | |
| 正俗諺解 | | |
| 呂氏鄉約諺解 | 中宗朝 | |
| 農書諺解 | 全 | (본디 世宗朝繙譯을 開刊함) |
| 蚕書諺解 | 全 | (全) |
| 癩瘡方諺解 | 全 | |
| 瘡疹方諺解 | 全 | |
| 童蒙先習 | 全 | 朴 世 茂 |
| 老乞大諺解 | 全 (?) | 崔 世 珍 |
| 朴通事諺解 | 全 (?) | 崔 世 珍 |
| 三經釋義 | 宣祖朝(西紀一五六八——一六〇八) | 李 退 溪 |
| 四書釋義 | 全 | |
| 四書諺解 | 宣祖朝 | (栗谷)命儒臣撰 |
| 小學諺解 | 全 | 全 |
| 易, 詩, 書諺解 | 全 | 全 |
| 家禮諺解 | 全 (?) | 申 混 |
| 胎產集要諺解 | 全 | 許 浚 |
| 周易本義口訣 | 全 | 崔 命 |
| 五倫歌諺解 | 仁祖朝(西紀一六二三——一六四九) | 李 曙 |
| 馬經諺解 | 全 | |
| 種德新編 <small>(金瑄著)</small> 諺解 | (?) 仁祖以後 | |
| 警民編 <small>(金正國著)</small> 諺解 | 孝宗朝(西紀一六五〇——一六五九) | |
| 小學諺解 | 顯宗七年(西紀一六六六) | 宋 浚 吉 |
| 老乞大諺解(?) | 全 十一年(西紀一六七〇) | |
| 朴通事諺解 | 肅宗三年(西紀一六七七) | { 邊 暹 朴 世 華 |
| 五倫全備諺解 | 肅宗四十六年(西紀一七二〇) | |
| 心經口訣 | 肅宗朝(西紀一六七五——一七二〇) | 朴 世 采 |
| 唐本四書諺解 | 英祖十年(西紀一七三四) | |
| 訓義小學 | 全 二十年(西紀一七四四) | |

| | | |
|---------|-------------------|-------|
| 關義昭鑑諺解 | 全 三十一年(西紀一七五五) | |
| 新釋老乞大諺解 | 全 三十七年(?) | 邊 憲 |
| 朴通事新釋諺解 | 全 四十一年(西紀一七六五) | 金 昌 祚 |
| 增修無冤錄諺解 | 正祖 十四年(西紀一七九〇) | |
| 重刊老乞大諺解 | 全 十九年以後 | |
| 五倫行實 | 全 二十一年(西紀一七九七) | |
| 武藝圖譜通 | 正祖朝(西紀一七七七——一八〇〇) | |
| 明義錄諺解 | 全 | |
| 續明義錄諺解 | 全 | |
| 華音啓蒙諺解 | 高宗 二十年(西紀一八八三) | 李 應 憲 |
| 敬信錄諺解 | ? | ? |
| 孝經諺解 | ? | ? |
| 感應篇圖說 | ? | ? |

(이 밖에 書傳正音, 詩傳正音 等 正音類도 있음.)

第三類 辭書類

甲. 普通辭書類

- Dictionnaire Coreen-Francais. Par les Missionnaires de Coree de la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1880. (「韓佛字典」佛國宣教師等著)
- George Costa, Dictionnaire CoreenFrancais. 1880. (「韓佛字典」지올지著)
- 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Pocket Edition in two Volumes) 1890. 橫濱 (「懷中韓語辭典」언더우드著. 二卷)
- Vo. I. Korean-English (第一卷 韓英辭典)
- 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Pocket Edition in two Volumes) 1890. 橫濱. Vol. II. English-Korean (第二卷 英韓辭典)
- 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and English-Korean. 1890. 橫濱.(韓英及英韓字典 언더우드著)
- Paryum Vocabularium ad usum Studiosae juventutis Coreanae. 1891. 香港.(羅甸韓字典)
- James Scott, English-Korean Dictionary. 1891. (젼쓰스코트著「英韓字典」)
- James S. Gale, A Korean-English Dictionary. 1897. 橫濱.(게일著「韓英字典」)
- Charles Alevogue, Petit Dictionnaire Francais Coreen. 1901. (찰쓰著「法韓字典」)
- Geln W. Hodge, The Strangers Handbook of the Korean Language. 1902. 2nd Edition. (內部の 題目은 Korean Words and Phrases Being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 (한지著 韓語小辭典)
- James S. Gale, A Korean-English Dictionary. 1911. 橫濱.(게일著「韓英字典」)
- 日鮮會話辭典 隆熙 三年(西紀一九〇九)六月 四版 日語雜誌社
- 日鮮いろは辭典 明治 四十年(西紀一九〇七)五月 柿原治郎
- 鮮譯國語大辭典 大正 八年(西紀一九一九)五月 船岡獻治
- 朝鮮語辭典 大正 九年(西紀一九二〇)三月 朝鮮總督府

乙. 百科辭書類

大東韻府群玉 二十卷 宣祖二十一年(西紀一五八八)
 芝峯類說 二十卷 光海主六年(西紀一六一四)
 玉彙韻考 仁祖九年(西紀一六三一)
 類苑叢寶 四十七卷 仁祖朝(西紀一六二三——一六四九)
 攷事新書 十五卷 英祖四十七年(西紀一七七一)
 星湖僊說 李瀛著) 類選十一卷
 才物譜 八卷 正祖(西紀一七七七——一八〇〇)頃
 萬家叢玉 十二卷 ?
 新編玉叢 四卷 ?

權文海
 李暉光
 李景羽
 金肅膺
 徐命膺
 安昇福
 李成之
 ?
 ?

丙. 特殊辭書類 (처음으로 法制類三種, 地理類一種, 處世類一種, 傳記類六種, 醫書類二種)

東國文獻備考 百卷 英祖四十六年(西紀一七七〇)
 增補東國文獻備考 二百五十卷 隆熙二年(西紀一九〇八)
 礪溪隨錄 二十三卷 英祖十三年(西紀一七三七)
 東國輿地勝覽 五十五卷 成宗十三年(西紀一四八二)
 (中宗二十四年即西紀一五二九, 中宗命李荇等增補, 即現行『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山林經濟 十六卷 原著或云顯宗頃朴世堂
 名臣錄 十二卷 正祖朝(西紀一七七七——一八〇〇)
 海東名臣傳 六卷
 名臣言行錄 五十卷
 俎豆錄 二卷
 嶺南人物考 十卷 正祖朝(西紀一七七七——一八〇〇)
 國朝人物志 三卷 隆熙三年(西紀一九〇九)
 東醫寶鑑 二十五卷 光海二年(西紀一六一〇)
 濟衆新編 八卷 正祖二十三年(西紀一七九九)

英祖命撰
 高宗命撰
 柳馨遠
 盧思慎等奉命撰
 文城柳重臨增補
 命撰
 洪良浩
 ?
 李邁運
 命撰
 安鍾和
 許浚
 康命吉奉撰

第四類 語源과 俚諺書類 (차례로 語源四種, 俚諺五種)

雅言覺非 二卷
 華音方言字義解 (「懸齋遺稿」의 「雜著」의 一篇) 英正祖頃
 東韓譯語 (「古今釋林」의 一篇) 正祖十三年(西紀一七八九)
 東言考略 ?
 (隆熙二年 鄭喬 補纂의 同名의 「東言攷略」이 나게 됨)
 旬五志 孝宗頃人
 耳談續纂 純祖二十年(西紀一八二〇)
 (隆熙 二年에 梁在睿가 增補한 同名의 書가 있음)
 朝鮮俚諺 大正二年(西紀一九一三)
 朝鮮의 俚諺集附 物語 大正三年(西紀一九一四)
 朝鮮의 謎 大正八年(西紀一九一九)

丁若鏞
 黃胤錫
 李義鳳
 ?
 洪萬宗
 丁若鏞
 崔瑗植
 高橋亨
 朝鮮總督府

第一類 辭書類

三韻通考

?

?

(金濟謙成孝基의 「增補三韻通考」가 있음)

(東國正韻 六卷)

世宗二十九年(西紀一四四七)九月

申叔舟·崔恒等奉命撰

(四聲通攷)

世宗朝(西紀一四一九——一四四九)

申叔舟奉命撰

(洪武正韻通考)

文宗朝(西紀一四五二——一四五三)

申叔舟奉命撰

(約韻圖)

崔 潑

四聲通解 二卷(四聲通攷의增補)

中宗十二年(西紀一五一七)

崔 世 珍

三韻補遺 四卷(三韻通攷의增補)

肅宗 二十八年(西紀一七〇二)

朴 斗 世

華東正音通釋韻考 二卷 英祖二十三年(西紀一七四七)

朴 性 源

(本書는 華東正音, 또는 正音通釋이라고도 함)

華東叶音通釋

正祖 十二年(西紀一七八八)正月

朴 性 源

三韻聲彙 二卷補一卷

英祖 二十七年(西紀一七五一)

洪 純 甫

御定奎章全韻

正祖 二十年(西紀一七九六)

御 定

韻會玉篇 二卷

中宗 三十一年(西紀一五三六)

崔 世 珍

三韻聲彙補玉篇 (前示)

英祖 二十七年 正月

洪 純 甫

全韻玉篇 二卷

(奎章全韻과 同時代라고 推測함)

字典釋要

隆熙 三年(西紀一九〇九)七月

池 錫 永

國漢文新玉篇

明治 四十四年(西紀一九一一)八月

鄭 益 魯

新字典

大正 四年(西紀一九一五)十二月

崔 南 善

模範鮮和辭典

昭和 三年 三月 二十日

鄭 敬 哲

◇以下類別辭書類◇

訓蒙字會 三卷

中宗 二十二年(西紀一五二七)

崔 世 珍

字類註釋 二卷

哲宗 七年(西紀一八五六)

鄭 允 容

千字文

類合

◇以下近世支那語辭書類◇

(譯語指南)

成宗 九年(西紀一四七八)

李克培 等

語錄解

顯宗 十年(西紀一六六九)

南 二 星 等

譯語類解 二卷

肅宗 十六年(西紀一六九〇)

金 敬 俊 等

譯語類解補

英祖 五十一年(西紀一七七五)

金 弘 喆

古今釋林 四十卷

正祖 十三年(西紀一七八九)

李 義 鳳

華語類抄

高宗 九年(西紀一八八三)以後?

?

老朴輯覽(老乞大朴通事의拔萃註解者)

崔 世 珍

小說語錄解

?

?

第二類 讀本書類

老乞大

?

?

| | | |
|-----------------------------------|---------------------------|------------------|
| 老乞大新釋 (은는「新釋」 大라고도함) | 英祖 三十七年 (西紀一七六一) | 邊 憲 |
| 重刊老乞大 | 正祖 十九年 (西紀一七九五) | 李 洙 等 |
| 老乞大諺解 二卷 | 顯宗 十一年 (西紀一六七〇) | 崔世珍의것重刊이아닌지? |
| 新釋老乞大諺解 三卷 | 英祖 三十九年 (西紀一七六三) | 邊 憲 |
| 重刊老乞大諺解 二卷 | ? | ? |
| 朴通事 (老乞大와 함께 世宗實錄의 五年 六月條에 처음 보임) | | |
| 朴通事新釋 (은는「新釋」 朴通事) | | 金昌祚·邊憲 李湛等 修整 |
| 朴通事諺解 三卷 | 肅宗 三年 (西紀一六七七) | 邊暹·朴世華等 |
| 朴通事新釋諺解 三卷 | 英祖 四十一年 (西紀一七六五) | 金 昌 祚 |
| (直解小學) | 世宗 二十四年 (西紀一七四二)八月 | 悞 長 壽 |
| 五倫全備 五卷 | | |
| 伍倫全備諺解 五卷 | 景宗 元年 (西紀一七二一) | 教誨廳官等 |
| 訓世評話 | 成宗 四年 (西紀一四七三)六月 (全十一年刊行) | 李 邊 |
| 華音啓蒙 二卷 | 高宗 二十年 (西紀一八八三) | 李 應 憲 |
| 華音啓蒙諺解 二卷 | ? | ? |

第三部 蒙古語 本位의 書類

第一類 辭書類

| | | |
|-----------------------|------------------|-------|
| (蒙漢韻要) | 成宗 八年 (西紀一四七七) | 尹 子 雲 |
| 蒙語類解 二卷 | 英祖 四十四年 (西紀一七六八) | 李 億 成 |
| 蒙語類解補篇 | 正祖 十四年 (西紀一七九〇) | 方 孝 彥 |
| 三學譯語 六卷 (古古釋林 의一篇) | 正祖 十三年 (西紀一七八九) | 李 義 鳳 |

第二類 讀本書類

| | | |
|---------|-------------------------------|----------------------|
| (王可汗) | | |
| 守成事鑑 | 肅宗 十六年 (西紀一六九〇) | { 朴東說·朴東琰 崔德了等 刊行 |
| 御史箴 | (右同. 兩書한가지로 英祖十三年까지 譯科에 쓰이었음) | |
| (高難) | 兵火燒失 | |
| (加屯) | 兵火燒失 | |
| (皇都大訓) | 兵火燒失 | |
| 孔夫子 | (「守成事鑑」條와 같음) | |
| (帖月眞吐) | 兵火燒失 | |
| (高安)昌科 | 兵火燒失 | |
| 伯顏波豆 | (「孔夫子」의 條와 같음) | |
| 待漏院記 | (右 全) | |
| (速八實章記) | 兵火燒失 | |
| (何赤厚羅) | 兵火燒失 | |
| (巨里羅) | 兵火燒失 | |

(老乞大) 兵火燒失
 新翻老乞大 (肅宗 十年(西紀一六八四) 以來譯科에 쓰이엇음)
 蒙語老乞大 八卷 (英祖 十七年 李最大刊行. 其後 李億成訂正. 正祖 十四年 補刊함이 있음)
 捷解蒙語 四卷 正祖 十四年(西紀一七九〇)訂正 方孝彥
 (英祖 十三年 蒙學官 李世休等의 刊板을 訂正한 것)

第四部 女眞語 本位の 書類

讀本の 書類로서의 書名이 보이나 이제는 거진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千字文, 兵書, 三歲兒, 自侍衛, 七歲兒, 十二諸國, 貴愁, 吳子, 孫子들이 「經國大典」의 女眞學譯科에 보이지마는 「通文館志」에 兵燹에 잃어버리엇다고 하였습니다. 또 去化, 仇難, 太公尙書(또는 尙書), 小兒論, 八歲兒들이 「經國大典」의 女眞學譯科에 보이나 그 뒤 滿洲語로 繙譯되고 또 申繼騫에게 訂正 되었습니니다.

第五部 滿洲(清)語 本位の 書類

第一類 辭書類

(同文類集) 肅宗 十七年(西紀一六九一) 清學官等刊板
 同文類解 二卷 英祖 二十四年(西紀一七四八) 玄文恒
 漢清文鑑 十五卷 (佛國巴里東洋語學校) (쿠란氏는 이것이 十) 李洙等
 (附屬圖書館에 만잇음) (八世紀頃에 되었다함)
 三學譯語 六卷 (「古今釋林」의 一篇) 正祖 十三年(西紀一七八九) 李義鳳
 (滿漢四書, 滿漢同文, 滿漢類集, 滿漢節要들을 肅宗 때에 燕肆에서 購入하여 繙譯한 것도 잇음)

第二類 讀本書類

小兒論 (女眞語에서 繙譯한 것. 肅宗 二十九年 朴昌裕等 出刊)
 八歲兒 (右 全)
 去化 (女眞語에서 繙譯된 것)
 仇難 (右 全)
 太公尙書 (右 全)
 三譯聰解 十卷 (또는 「清語聰解」) 肅宗 二十九年(西紀一七〇三) 吳廷顯, 李宜白等
 重刊三譯總解 十卷 英祖 五十年(西紀一七七四) 金振夏
 新譯小兒論 正祖 元年(西紀一七七七) 金振夏
 新譯八歲兒 全年 金振夏
 清語老乞大 (또는 「老乞大」 「新翻老乞大」) 八卷 肅宗 二十九年 朴昌裕等六人
 新釋清語老乞大 八卷 英祖 四十一年(西紀一七六五) 金振夏

第六部 日本語 本位の 書類

第一類 辭書類

倭語類解 二卷 肅宗朝(西紀一六七五——一七二〇)?

洪舜明?

三學譯語(「古今釋林」의 一篇) 正祖 十三年(西紀一七八九)

李 義 鳳

第二類 讀本書類

伊呂波 (以下 十四種은 「經國大典」에 譯科試驗用이 되어 있음)

消息

書格

老乞大

童子教

雜語

本草

議論

通信

鳩養物語

庭訓往來

應永記

雜筆

富士

捷解新語 十卷

肅宗 二年(西紀一六七六)

康 遇 聖

改修捷解新語

英祖 二十四年(西紀一七四八)

{ 崔 鶴 齡

重刊捷解新語 十二卷

正祖五年(西紀一七八一)

{ 崔 壽 仁

捷解新語文釋 十二卷

正祖二十年(西紀一七九六)

崔 鶴 齡

(長語)

金 健 瑞

洪 舜 明

隣語大方 十卷 (年代와 著者가 未詳하나 捷解新語以後의 것)

以上 가운데에서 第一部の 百科辭書類, 其他 漢文으로 쓰인 것은 別로 關係없다고 보기 쉽지만은 間接으로 參考가 되는 것입니다。 또 古書에 關한 것은 大개 求하기가 어렵고, 或은 아주 없어지고 말은 것도 많으나 研究 文獻史로라도 必要하기에 알아진 대로 紹介한 것입니다。 이 材料 文獻中 古文獻은 小倉進平 博士의 著書에 主로 힘입음이 큼을 물리어 말 하여 두는 同時에 感謝를 表하는 바이다。(註一, 註二.)

明治時代に 日本語와 比較 研究한 論文

| 題 目 | 著 者 | 掲載 雜誌 | 卷 號 | 年 月 | 備 考 |
|---------------------------|-------|--------------|---------|----------|----------------------|
| 日韓兩語比較研究(英文) | 에 쓰 毛 | 大英亞細協會報告 | 12의3 | 12. — | |
| 日本語と朝鮮語との類似 | 大 矢 透 | 人類學會雜誌 | 4의37 | 22. 3 | |
| 朝鮮語考 | 高橋二郎 | 如蘭社話 | 13 | 22. 9 | |
| 本那の人種言語に付鄙考を述べて世の眞心愛國者に質す | 星 野 恒 | 史學會雜誌 | 1의11 | 23. 10 | 이것 은나 歷史地理朝鮮號에 개 었다함 |
| 日韓言語之關係 | 赤峯瀨一郎 | 日韓英三國對話 卷上所載 | — | 25. 6 | |
| 日韓言語近似 | — | 新文學 | 2 | 26. 2 | |
| 吏道諺文考 | 岡倉田三郎 | 東洋學藝雜誌 | 143의144 | 26. 8. 9 | |

요지음출版인
菅治貞風著大
日本商業中예
三兩語比較論
이 잇음

| | | | | |
|--------------------------|-------|-------------------|----------------|------------------|
| 字音考 | 全 | 全 | 145 | 26.10 |
| 本邦の數詞に就きて | 全 | 哲學雜誌 | 8의1 | 26.11 |
| 日韓類語論 | 吉田東伍 | 日韓古史斷 第一編第三章所載 | | 26.12 |
| 朝鮮古代諸國名稱考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6의7.8 | 28.7.8 |
| 朝鮮古代地名考 | 全 | 全 | 6의10.11 7의1 | 28.10.11 29.1 |
| 朝鮮古代王號考 | 全 | 全 | 7의2 | 29.2 |
| 朝鮮古代官名考 | 全 | 全 | 7의4 | 29.4 |
| 高句麗の名稱に就ての考 | 全 | 國學院雜誌 | 2의10 | 29.8 |
| 吏道 | 全 | 史學雜誌 | 8의1 | 30.1 |
| 爲古吐考(附朝鮮語講究史) | 岡倉田三郎 | 帝國文學 | 3의4 | 30.4 |
| 日本書紀に見えたる韓語の解釋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8의4.6.7. | 30.4.6.7 |
|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 | 全 | 國學院雜誌 | 4의4-12 | 31.2-10 |
| 日本語と朝鮮との關係 | 大嶋正健 | 獨立雜誌 | 1.2 | 31.5.1 |
| 日本の古語と朝鮮語との比較に就て | 福田芳之助 | 國學院雜誌 | 5의4 | 32.2 |
| 日本語と朝鮮語との比較に就て 福田君に答ふ | 白鳥庫吉 | 全 | 5의6 | 32.4 |
| 諺文の起源 | 金澤庄三郎 | 朝鮮月報 言語學雜誌 | 1 1의2 | 32.9 33.3 |
| 朝鮮の書籍 | 全 | 朝鮮月報 | 2,3 | 32.11 33.1 |
| 日韓語の異同 | 鮎貝房之進 | 全 | 3 | 33.1 |
| 朝鮮に關する西人の研究 | 金澤庄三郎 | 全 | 3 | 33.1 |
| 主格を示す本來の辭 | 岡倉田三郎 | 帝國文學 | 6의2 | 33.2 |
| 語尾の「入」に就て | 全 | 言語學雜誌 | 1의1 | 33.2 |
| 漢史に見えた朝鮮語 | 白鳥庫吉 | 全 | 1의3 | 33.4 |
| 朝鮮語と日本語との關係 | 一 | 全 | 1의3 | 33.4 |
| 再び朝鮮の古語に就て | 白鳥庫吉 | 全 | 2의1 | 34.1 |
| 日韓語比較論及動詞論 | 金澤庄三郎 | 學位論文 | — | 35.— |
| 假名の起源に就て | 全 | 言語學雜誌 | 3의3 | 35.9 |
| 郡村の語源に就て | 全 | 史學雜誌 | 13의11 | 35.11 |
| 都加佐名義考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1의4 | 36.4 |
| 國語學刷新の時機 | 金澤庄三郎 | 教 育 | 38 | 36.4 |
| 羅馬字索引朝鮮地名字彙略評 | 幣原坦 | 史學雜誌 | 14의9 | 36.9 |
| 寧樂考 | 金澤庄三郎 | 全 | 14의11 | 36.11 |
| 日本文法論 | 全 | 單 行 | — | 36.12 |
| 古事記の一節に關する私疑 | 全 | 帝國文學 | 10의1 | 37.1 |
| 言語に關する韓國の遊戲 | 全 | 太 陽 | 10의1 | 37.1 |
| 朝鮮地名字彙略評に答ふ | 全 | 史學雜誌 | 15의1 | 37.1 |

| | | | | | |
|--|-------|----------------|-------------------|-------------------|--------------------------------------|
| 金澤博士の寧樂考を讀みて | 元田修三 | 全 | 15의1 | 37.1 | |
| 「朝鮮地名彙略評に答ふ」 を讀む | 幣原坦 | 全 | 15의3 | 37.3 | |
| 法制史の研究上に於ける 朝鮮語の價値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7의4.5 | 37.4.5 | 나종의史學雜誌 (十五의七)의問 題와 같은것 |
| 朝鮮地名彙略評につきて再び 幣原君に問ふ | 金澤庄三郎 | 史學雜誌 | 15의4 | 37.4 | |
| 寧樂に就きて元田君に答ふ | 全 | 全 | 15의5 | 35.5 | |
| 「朝鮮地名彙略評につきて再び 幣原君に答ふ」を讀む | 幣原坦 | 全 | 15의6 | 37.6 | |
| 日本法制史の研究上に於ける朝 鮮語の價値 | 宮崎道三郎 | 全 | 15의7 | 37.7 | 前の法學協會雜 誌(二十二의四 五)의問題와 같 은것 |
| 郡村の語源に對して専門大家の 御教示を乞ふ | 中田薰 | 全 | 15의7 | 37.7 | |
| 朝鮮語と日本法制史 | 宮崎道三郎 | 國家學會雜誌 | 209 | 37.7 | |
| 中田君が郡村の語源に就いての 考を讀む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15의9 | 37.9 | |
| 朝鮮意流村の地名を論じて日本 古代の内治外交に關する二三の 事項に及ぶ | 宮崎道三郎 | 國家學會雜誌 | 212 | 37.10 | |
| 再び郡村の語源に就て | 中田薰 | 史學雜誌 | 15의11 | 37.11 | |
| 「校訂交隣須知」の新刊 | 幣原坦 | 全 | 15의12 | 37.12 | |
| 朝鮮語と日本歴史 | 宮崎道三郎 | 東洋學藝雜誌 | 279 | 37.12 | |
| 形容詞考 | 金澤庄三郎 | 教育學術界 | 10의4 | 38.1 | |
| 延言考 | 全 | 帝國文學 | 11의1 | 38.1 | |
| 國語學に對する予の希望 | 全 | 國學院雜誌 | 11의1 | 18.1 | |
| 姓氏雜攷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3의2.3.11 24의3 | 38.2.3.11 39.3 | |
| 國語と外國との比較研究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15의2-12 | 38.2-12 | |
| 郡村なる語の原義 | 中田薰 | 國家學會雜誌 | 217 | 38.3 | |
| 名詞の性に關する研究 | 金澤庄三郎 | 國學院雜誌 | 11의7 | 38.7 | 나종外國語學校 校友會雜誌所載 (獨文)와 같은것 |
| 四び郡村の語源に就て | 中田薰 | 史學雜誌 | 16의7 | 38.7 | |
|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たる啄評邑 勤擔魯及び須祇の考 | 全 | 全 | 15의8 | 38.8 | |
| 賒と出學 | 宮崎道三郎 | 國家學會雜誌 | 223 226 | 38.9.12 | |
| 言葉のかずかず | 松村任三 | 東洋學藝雜誌 | 自288 至329 | 自38.9 至42.2 | |
| 中田君が韓國古代村邑の稱呼た る啄評邑勤擔魯及び須祇に就き ての考を讀む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16의10 | 38.10 | |
| 日文法講義 | 金澤庄三郎 | 早稻田大學 文科講義錄 | — | 38.10以下 | 日本文法新論이 라하여 大正二 년에出版함 |
| てにをは廢止論 | 廣池千九郎 | 全 | — | 38.10以下 | 나중에「てに はの研究」라 하 여 出版함 |
|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たる忽 (Kol)の原義に就て | 白鳥庫吉 | 學史雜誌 | 16의11 | 38.11 | |
| 韓國古代村邑の稱呼に就て 白鳥博士に答ふ | 中田薰 | 全 | 16의11 | 38.11 | |

| | | | | | |
|---|--------|------------|-----------------|-----------------|------------------------|
| 日本植物の語源 | 松村任三 | 園藝雜誌 | 17の11 | 38.11 | |
| 可婆根考 | 中田 薫 | 史學雜誌 | 16の12 | 38.12 | |
| 郡の語源 | 金澤庄三郎 | 帝國文學 | 12の1 | 39.1 | |
| 耳目鼻口 | 全 | 教育學術界 | 12の4 | 39.1 | |
| 啄評の原義 | 宮崎道三郎 | 史學雜誌 | 17の1 | 39.1 | |
| 日本莊園の系統 | 中田 薫 | 國家學會雜誌 | 20の1.2 | 39.1.2 | |
| 賤の字義を論じて日本支那印度古代の手形に及ぶ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4の2 | 39.2 | |
| 家族に稱呼に関する二三の考 | 金澤庄三郎 | 早稻田學報 | 129 | 39.2 | |
| 國語に於ける敬稱語の原義に就いて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17の4.11.12 | 39.4.11.12 | |
| 名詞の性に關する研究 <small>(獨文)</small> | 金澤庄三郎 | 外國語學校校友會雜誌 | — | 39.5 | 前記國學院雜誌所在を獨文譯せ |
| 活用に関する私見の一節 | 全 | 國學院雜誌 | 12の6 | 39.6 | |
| 日韓兩國語の比較研究 | 宮崎道三郎 | 史學雜誌 | 自17の7 至18の11 | 自39.7 至40.11 | |
| 日本語研究上より朝鮮語の研究 <small>(英文)</small> | ハイド・レイ | 大日本亞細亞協會報告 | 34の1 | 39.8 | |
| 日韓語比較研究小史 | 元田修三 | 國學院雜誌 | 12の9 | 39.9 | |
| 佐刀(郷里)の原義 | 宮崎道三郎 | 國家學會雜誌 | 20の10 | 39.10 | |
| てにをはの研究 | 廣池千九郎 | 單 行 | — | 40. | 前記「てにをは」癡止論」の出版或四十一年に於 |
| 日韓兩國語文字組織上に於ける梵語の影響 <small>(獨文)</small> | 金澤庄三郎 | 全 | — | 40. | |
| 部曲考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5の3 | 40.3 | |
| 部曲考補遺 | 全 | 全 | 25の4 | 40.4 | |
| 我が古代の法制關係語 | 中田 薫 | 國家學會雜誌 | 21の9 | 40.9 | |
| 日韓語の關係 | ● ● 生 | 日本新聞 | — | 40.10 | |
| 韓語研究の急務 | 金澤庄三郎 | 國學院雜誌 | 14の1 | 41.1 | |
| 諺文について | 高橋龍雄 | 全 | 14の1 | 41.1 | |
| 阿利那禮河と新羅の議會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6の4.5.6 | 41.4.5.6 | |
| 日韓滿蒙語の研究について | 金澤庄三郎 | 東亞の光 | 3の11 | 41.11 | |
| 履仲紀の史に就て | 宮崎道三郎 | 國家學會雜誌 | 23の1 | 42.1 | |
| 外來語について | 金澤庄三郎 | 文國文學 | 15の1 | 42.1 | |
| 朝鮮古地名の二三に就いて | 坪井九馬三 | 史學雜誌 | 20の1.2 21の3 | 42.1.2 43.3 | |
| 日韓アイヌ三國語の數詞について | 白鳥庫吉 | 全 | 20の1.2.3 | 42.1.2.3 | |
| 勝部考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7の3 | 42.3 | |
| 日韓兩國語系論 | 金澤庄三郎 | 東洋協會調查部報告 | 1 | 42.7 | 本誌日英兩文の出版 |
| 敷島考 | 全 | 讀賣新聞 | — | 42.7 | |
| 八の數を尙ふ古習 | 白鳥庫吉 | 學習院補仁會雜誌 | 76 | 42.12 | |

| | | | | | |
|----------------------------|-------|-------------|---------------|---------------|----------------------------------|
| 日韓字音比較研究 (規則及應用) | 間島龍眞 | 朝鮮 | 4의5 | 43.1 | |
| 日韓古地名に就いて | 金澤庄三郎 | 史學雜誌 | 21의1 | 43.1 | 나종 「日鮮古代地名의研究」는 이것의增補 |
| 日韓兩國語同系論(日英) (兩文) | 全 | 單行 | — | 43.1 | 前의 東洋協會調查報告의 것과 같음 |
| 言語の研究と古代の文化 | 全 | 國學院雜誌 | 16의2 | 43.2 | 나종 大正二年에 單行本으로 出版됨 |
| 日韓兩國語同系の一特點 | 間島龍眞 | 朝鮮 | 26 | 43.4 | |
| 漢字の別訓轉用と古代に於ける 我邦制度上の用語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8의5 | 43.5 | |
| 神奈備考 | 金澤庄三郎 | 史學雜誌 | 21의6 | 43.6 | |
| 毛麻利比智に就いて | 宮崎道三郎 | 東亞の光 | 5의10 | 43.10 | |
| 朝鮮に於ける國語問題 | 金澤庄三郎 | 讀賣新聞 | — | 43.11 | |
| 日韓音韻比較研究の一節 | 全 | 朝鮮 | 未詳 | | |
| 東西南北 | 全 | 小學校 | 未詳 | | |
| 探湯考 | 全 | 神社協會雜誌 | 9의11 | 43.11 | |
| | | 東亞の光 | 5의12 | 43.12 | |
| 任那雜考 其一 任那疆域考 | 宮崎道三郎 | 國家學會雜誌 | 24의21 25의2 | 43.12 44.2 | |
| 國語の研究 | 金澤庄三郎 | 單行 | — | 43.12 | 氏의 論文을 集錄한 것인 데이 것에 氏의 論文이 다를 것임 |
| 肅慎考 | 白鳥庫吉 | 歷史地理 | 17의1 | 44.1 | |
| 朝鮮文字の製作に就て | 林泰輔 | 文學界 | 1의1 | 44.2 | |
| 任那宰の韓名「吉」の本義 | 宮崎道三郎 | 法學協會雜誌 | 29의3 | 44.3 | |
| 朝鮮語講究について | 金澤庄三郎 | 朝鮮總督府單行 | — | 44.7 | |
| 陸奥考 | 全 | 史學雜誌 | 23의1 | 45.1 | |
| 母音の開會殊に「ウ」について | 小倉進平 | 朝鮮 國學院雜誌 | 未詳 18의3 | 45.3 | |
| 日鮮古代地名の研究(日獨) (兩文) | 金澤庄三郎 | 朝鮮總督府單行 | — | 45.6 | 前의 史學雜誌(主의一)의 것을 增補한 것 |

以上은 龜田次郎氏의 調査(註三)를 引用한 것입니다。

| | | | |
|--|--------|------|--------------------------|
| 正音의 發源 | 갈배사람 | 時代日報 | 大正十五年(一九二六)一月一日로 二日까지 連載 |
| 歷史의 訓民正音 | 魚允迪 강연 | 朝鮮日報 | 全年十一月十四日로 十五日까지 連載 |
| 正音의 故典 | 魚允迪 | 東亞日報 | 全年十一月十四日로 十五日까지 連載 |
| 正音 | 崔鉉培 강연 | 朝鮮日報 | 全年十一月十八日로 十九日까지 連載 |
| 訓民正音 | 權憲奎 강연 | 朝鮮日報 | 全年十一月十六日 |
| 經濟上으로 본 우타글 | 鄭烈模 강연 | 全 | 全年十一月十三日 |
| 正音을 制定頒布한 날은 陰九月二十九日이 아니라 陰十一月初八日이 되었다 | 金汝植 | 東亞日報 | 全年十二月八日,十日 |
| 正音制定頒布 (金汝植氏論文에 對하여) | 魚允迪 | 全 | 全年十二月二十九日로 三十日까지 |
| 朝鮮古來의 文字와 詩歌의 變遷 | 申采浩 | 全 | 大正十三年(一九二四)一月一日 |

| | | | |
|--|---|---------------|---|
| 古史上吏讀文名詞解釋 (國名, 官名地名等) | 全 | 全 | 全年十月二十日, 二十七日 十一月三日連載 |
| 全 | 全 | 朝鮮史研究 草의一節 | 昭和四年六月十五日發行 |
| 諺文의淵源 | 安 廓 | 時代日報 | 大正十四年五月十二日 |
| 글보는사람으로서글쓰는 이(文士)에게 | 李 鉞 | 東亞日報 | 昭和二年二月二十八日 |
| 한글運動의意義와使命 | 東亞日報社說 | 東亞日報 | 昭和二年十月二十七日, 二十八日 |
| 漢字廢止論 | 朝鮮日報社說 | 朝鮮日報 | 全年十月二十四日 |
| 國之語音(正音八回甲日) | 東亞日報社說 | 東亞日報 | 大正十五年十一月五日 |
| 正音發布紀念日 | 中外日報社說 | 中外日報 | 昭和二年(丁卯)十月二十四日 |
| 한글을어떠케整理할까 (並書回復, 받침增加, 廢止, 音節) | 崔鉉培 | 東亞日報 | 全年十月二十四日 |
| 가가날紀念 | 東亞日報社說 | 全 | 全年十月二十四日 |
| 訓民正音原本에對하여 | 申明均 | 全 | 全年十月二十四日 |
| 世宗과訓民正音 | 李允宰 | 全 | 全年十月二十四日, 二十五日, 二十六日連載 |
| 오늘이가가날 | 東亞日報 | 全 | 全年十月二十四日 |
| 한글問題를어떠케解決할것인가 | 崔鉉培 | 朝鮮日報 | 全年十月二十四日, 二十五日, 二十六日, 二十七日連載 |
| 朝鮮語와佛敎 | 權憲奎 | 全 | 全年十月二十六日, 二十七日連載 |
| 우리글의文字上世界地位 | 崔鉉培 | 中外日報 | 全年十月二十四日 |
| 이것이 이거지나 이거디나 | 李秉岐 | 朝鮮日報中外? | 全年十月二十五日, 二十六日 |
| 우리의목숨불은한글날 | 갈배趙奎洙 | 全 | 全年十月二十五日 |
| 가가날기념에대하여 | 장지영 | 全 | 全年十月二十四日 |
| 整理期의朝鮮文 | 申明均 | 全(東亞?) | 全年十月二十四日, 二十五日 |
| 正音以前의朝鮮글 | 權憲奎 | 中外日報 | 全年十月二十四日 |
| 世宗大王과訓民正音 | 李重乾 | 全 | 全年二十四日 |
| 真正한意味의紀念 | 李允宰 | 朝鮮日報 | 全年十月二十六日 |
| 한글統一을目標로 | 李常春 | 全 | 全年十月二十六日(?) |
| 이날을기념해야 (조선어특본결집과다행한소식) | 정열모 | 全 | 全年十月二十四日(?) |
| 公約를어세우자 | 金東煥 | 全 (?) | 全年十月二十五日 |
| 한글整理는어떻게할까 一. 된시옷이나並書의可否 二. 初聲全部를終聲으로쓰는可否 三. 漢字音의表音的이나歷史的의可否右 三問에對한答 | 權相老, 張魯, 震靑, 李乘岐, 李萬珪, 李允宰, 安一英, 金允經, 李常春, 魚允迪, 蔡弼近, 曹晚植, 白南奎, 李奎昉, 鄭大鉉, 李奎鏞, 金克培, 南相瓊, 李克魯 | 朝鮮日報 | 昭和四年五月二十八日, 二十九日, 三十日, 六月一日, 二日, 五日, 六日, 七日, 八日, 九日, 十一月十九日, 二十日連載 |
| 한글整理를反對하는曲解者에게 | 申明均 | 中外日報 | 昭和四年九月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廿一, 廿二, 廿三連載 (한글바침법시비에對한該社識問에對한實際家의意見(二〇)) |

| | | | |
|---|---|---------|---|
| 高音의 本質과 記寫法 (硬音辯證을 읽고서) | 權寧達 | 全 | 昭和五年(一九三〇)一月二十六日 廿九,卅一日一月一,二,四,六日連載 |
| 朝鮮文綴字法 (標準樹立에 서批評에로) | 權寧達 | 全 | 全年九月十八日,十九日,二十日,二十三日,二十六日 |
| 朝鮮文整理에 對하여 (綴字改定委員諸氏에게) | MK生 | 東亞日報(?) | 昭和三年(一九二八)十一月十一日 |
| 한글整理에 對한 諸家의 意見 (學務局改正에 對하여) | 崔鉉培 朴勝彬 | 全 (?) | 全年十一月三日 |
| 一. 한글整理에 對한 貴意見如何 (1) 現在使用法存續可否(其理由) (2) 改正의 必要하다면 그 原則(及 班由) | 李允宰 申明均 | | |
| 二. 左記諸問에 對한 費下의 意見 (1) 綴書의 可否(가다뻬)(理由) (2) 表音의 可否(及理由) (3) 初聲全部를 終聲으로 使用할 與否(及理由) | 李秉岐 李常春 金允經 | | |
| 右에 對한 後社設問에 對한 答 | | | |
| 新綴字에 關하여 | 李熙昇 | 東亞日報 | 昭和五年十一月十九,二十,廿一日 |
| 訓民正音發布第四百八十四週年記 念日을 當하여 그 過云를 回顧함 | 金允經 | 全 | 全年十一月十九日,二十日,二十一日,二十二日,二十三日,二十四日,二十五日連載 |
| 訓民正音 한글 | 金允經 | 全 | 昭和六年十月二十九日,三十日,三十一日,十一月一日 |
| 한글字形에 對한 科學的-一考察 | 金碩坤 | 全 | 全年十月二十九日 |
| 우리말 純化論 | 金善琪 | 全 | 全年十月二十九日 |
| 正音頒布와 그 文獻에 對하여 | 李秉岐 | 全 | 全年十月二十九日 |
| 우리말에 對한 漢字音問題 (이를 어떻게 處理할까) | 張志暎 | 朝鮮日報 | 昭和五年十一月十九日,二十日,二十一日,二十三日,二十五日 |
| 이날에 절히 느끼는바 | 鄭烈模 | 全 | 全年十一月十九日 |
| 標準文法과 標準辭典 | 李克魯 | 全 | 全年十一月十九日 |
| 朝鮮語研究의 現狀 | 李秉岐 | 全 | 全年十一月十九日 |
| 한글날에 追慕되는 周時經先生 | 장지영 | 全 | 全年十一月十九日 |
| 朝鮮語讀本의 語法的 錯誤 | 李 鉞 | 東亞日報 | 昭和六年三月十二日,十三日,十四日,十五日,十九日,二十日,廿六日,廿七日,廿八日,二十九日 |
| 綴字法의 理論과 ㅎ의 終聲問 | 李 鉞 | 全 | 昭和七年三月五日,六日,八日,九日,十日,十二日,十三日,十六日,十七日 |
| 한글運動의 現狀과 展望 | 李 鉞 | 全 | 全年十月二十九日,三十日 |
| 한글運動의 回顧 | 李允宰 | 全 | 全年十月二十九日,三十日,十一月一日,二日 |
| 한글로 론회속 기록 一. 並書可否 二. 重終聲可否 三. ㅎ 終聲可否 四. 用言의 「段活用」可否 (一千九百三十二年十一月七日로九日 日까지三日間東亞日報社樓上에서) | 一.二.三의 可便 餘四의 否便 申明均, 李熙昇, 崔鉉培, 右反對便 朴勝彬 丁奎昶 白南奎 | 全 | 昭和七年十一月十一日,十二日,十三日,十五日,十六日,十七日,十八日,十九日,二十日,二十二日,二十九日以下連載中 |

以上은 最近 日刊 新聞紙上에 發表된 것을 눈에 뜨이는데로 뽑아 본 것입니다。

| | | | | |
|---|--|------|------------------|--------------------------------------|
| 母音의 研究 (「本文의 新研究」中抄) | 天民子 | 全 | 全 | 全 |
| 斷行期에 臨한 正音文法 | 李周萬 | 全 | 全 | 全 |
| 諺文의 出處 | 安 廓 | 全 | 第六號 | 大正十五年十月一日 |
| 諺文의 發音과 記法 (「朝鮮科教授法」中抄) | 李揆百 | 全 | 全 | 全 |
| 朝鮮文字를 本文이 라하라 | 定 木 | 全 | 第七號 | 大正十五年十一月一日 |
| 朝鮮文의 變遷 | 鄭炳淳 | 全 | 第八號 | 大正十五年十二月一日 |
| 朝鮮語研究의 實題 | 安 廓 | 全 | 全 | 全 |
| 우리글 表記例의 몇몇 (十題의 設問에 對한 十八名의 回答) | 金鎮鎬, 金智煥 李万珪, 鄭烈模 權憲奎, 李奎昉 張魯震, 李常春 魚允迪, 張志暎 한 철, 白定木 朴勝彬, 李秉岐 李起爽, 姜 邁 崔鉉培, 申明均 | 全 | 第九號 | 昭和二年一月一日 |
| 安廓氏의 「朝鮮語實題」를 보고 한 빛 | | 全 | 全 | 全 |
| 安廓氏의 無識을 笑한 | 한 기 | 全 | 全 | 全 |
| 말의 習慣으로 된 變化 | 李秉岐 | 全 | 第十號 | 昭和二年二月一日 |
| 安廓君의 妄論을 駁한 | 한 외 | 全 | 全 | 全 |
| 根母音 變化의 組織 | 安自山 | 全 | 全 | 全 |
| 並書不可說 | 全 | 全 | 第十一號 | 昭和二年三月五日 |
| 朝鮮文은 複母를 쓰지 안을 것인가 | 金鎮浩 | 全 | 第十二號 | 昭和二年四月一日 |
| 安廓君에게 與한 | 鄭烈模 | 全 | 第十三號 | 昭和二年五月十日 |
| 吞棗나 構說이나 | 安自山 | 全 | 第十四號 | 昭和二年六月一日 |
| 東光의 韓글人 用例를 보고 | 李 鐸 | 全 | 第十五號 | 昭和二年七月五日 |
| 어찌하여 오르스은二音을 兼하였다 하는가 (文三平氏에게) | 한 걸 | 全 | 第十六號 | 昭和二年八月五日 |
| 朝鮮文典要領 | 洪起文 | 現代評論 | 第一,二,三,四, 五各號 | 昭二年一月二十日, 三月一日, 四月 一日, 五月一日, 六月一日 |
| 東洋文字의 種種 | 文三平(安廓) | 全 | 第六號 | 昭和二年七月一日 |
| 한글은 무엇인가 | 朴勝彬 | 全 | 第八,九, 第二卷一各號 | 昭和二年九月一日, 十月一日 全三年一月一日 |
| 朝鮮文字史(未完) | 崔鉉培 | 全 | 第二卷 第一號 | 昭和三年一月一日 |
| 조선말의 사투리 | 李克魯 | 東 光 | 第二十九號 | 昭和七年一月一日 |
| 한글綴字新異論檢討 一. 並書反對論 二. 終聲反對論 三. 用言終聲認否論 右에 對한 諸氏의 回答 | 金允經, 李奎昉 李允宰, 李克魯 崔鉉培, 金台俊 | 東 光 | 第三十二號 | 昭和七年四月一日 |
| 한글의 緊急問題인 持格促音 等研究 | 鄭賢奎 | 東 光 | 第三十三號 | 昭和七年五月一日 |
| 한글學의 先驅 周時經先生 | 金善琪 | 全 | 第三十五號 | 昭和七年七月一日 |
| 우리글에 對하여 | 洪淳赫 | 學之光 | 第二十八號 | 昭和二年三月十日 |
| 周時經先生 歷史 | 未詳 | 青 春 | 第一號 | 大正三年十月一日 |

| | | | | |
|---|-----|---------|--|---|
| 한글새로쓰자는말 | 未詳 | 全 | 第四號 | 大正四年一月一日 |
| 朝鮮語「대」의助動詞에對한管見 | 李熙昇 | 新興 | 第四,五號 | 昭和六年一月五日 五日全年七月五日 |
| 人代名詞小話 | 李熙昇 | 朝鮮語文學會報 | 第一號 | 昭和六年七月二十三日 |
| 「ㄹ」바침의誣妄을論함 | 李熙昇 | 全 | 第二號 | 全年十月三十一日 |
| 한글과宗教 | 心岳 | 全 | 全 | 全 |
| 標準語에對하여 | 李熙昇 | 全 | 第三號 | 昭和七年二月七日 |
| 「ㄷ」와「치」에對한생각一片 | 方鍾鉉 | 全 | 全 | 全 |
| 類推Analogie에對하여 | 李崇寧 | 全 | 第四號 | 昭和七年四月十八日 |
| Palatalization에對하여 | 金在喆 | 全 | 全 | 全 |
| 母音子音의名稱 | 金熙昇 | 全 | 全 | 全 |
| ㄱ ㄴ ㄷ ㅌ ㅍ ㅈ ㅊ ㅅ ㅆ ㅍ ㅈ ㅊ ㅅ ㅆ ㅍ ㅈ ㅊ ㅅ ㅆ ㅍ ㅈ ㅊ ㅅ ㅆ | 方鍾鉉 | 全 | 全 | 全 |
| 글과말 | 李崇寧 | 全 | 第五號 | 昭和七年九月八日 |
| 朝鮮語化와朝鮮語 | 金在喆 | 全 | 全 | 全 |
| 「ㄷ」바침의可否를論함 | 李熙昇 | 全 | 全 | 全 |
| 文學上으로본朝鮮의語戲 | 李殷相 | 新生 | 第二卷二號 全三號 | 昭和四年二月一日 全年三月五日 |
| 古에關한見解 | 朴勝彬 | 東方評論 | 第一號 | |
| 이제쓰는말과글의그릇된것 | 한결 | 新生 | 創刊號 | 昭和三年十月一日 |
| 朝鮮語研究餘草 | 權憲奎 | 全 | 第二卷二號 全三號全四號 | 昭和四年二月一日 全年三月五日 全年四月一日 |
| 朝鮮文學의朝鮮語 | 崔鉉培 | 全 | 第二卷三號 全四號全五號 | 昭和四年三月五日 全年四月一日 全年五月一日 |
| 周時經先生略傳 | 權憲奎 | 全 | 第二卷九號 | 昭和四年九月一日 |
| 周時經先生印象記 | 李秉岐 | 全 | 全 | 全 |
| 한학생스승을그림 | 崔鉉培 | 全 | 全 | 全 |
| 周時經先生의日記 | 編輯室 | 全 | 全 | 全 |
| 周時經先生을哭함 (辭世當時哀悼歌) | 未詳 | 全 | 全 | 全 |
| 舊韓國時代의國文研究會를 回顧하면서 | 李能和 | 全 | 全 | 全 |
| 周時經先生의地位 | 申明均 | 全 | 全 | 全 |
| 周先生과그의周圍 | 鄭烈模 | 全 | 全 | 全 |
| 周時經先生을憶함 | 白南奎 | 全 | 全 | 全 |
| 한글강의 | 李允宰 | 全 | 第二卷九號,十號 十一號,十二號 第三卷一號,三號 五號,六號 | 昭和四年九月一日 全年十月一日 年十一月六日 全年十二月 月六日 昭和五年一月一日 全年 年三月四日 全年五月六日 全 年六月六日 |
| 綴字法論難의楷梯 | 安自山 | 全 | 第三卷二號 | 昭和四年二月七日 |
| 조선말소리갈 | 李克魯 | 全 | 第三卷九號 | 昭和四年九月六日 |
| 朝鮮語의音聲 | 八大叟 | 全 | 第三卷十二號 | 昭和五年十二月十日 |
| 조선말과글(未完) | 한결 | 한빛 | 第二卷第一號(事實 創刊號)全二號 | 昭和三年一月十日 全年二月十 五日 |
| 吏讀란무엇인가 | 崔鉉培 | 全 | 第二卷二號 | 昭和三年二月十五日 |

| | | | | |
|-----------------------------|------|------------------|----------------------|---|
| 한글글씨의 이름에 대하여 | 崔鉉培 | 全 | 第六號 | 昭和三年七月一日 |
| 漢字廢止論 | 田榮澤 | 서 울 | 第五號 | 大正九年八月十五日 |
| 朝鮮辱說考 | 孫晋泰 | 新 生 | 第四卷一號 | 昭和六年一月一日 |
| 八大叟의「朝鮮語의聲音」 을 읽고서 | 金允經 | 全 | 第四卷二號 | 昭和六年二月一日 |
| 한글綴字法講義 | 李允宰 | 全 | 第五卷三號全四號 | 昭和七年三月三日 全年四月八日 |
| 狐を意味する朝鮮方言 | 小倉進平 | 青丘學叢 | 第一號 | 昭和五年八月十五日 |
| 濟州島方言 | 全 | 全 | 第五號 | 昭和六年八月十五日 |
| 鞞韃의方言分布 | 全 | 文教의朝鮮 | 第七十三號 | 昭和六年九月一日 |
| 西洋人にとって蒐集せられたる早い 時代の朝鮮語彙 | 全 | 城大文學會 第二部編纂 | 第一輯 | |
| 朝鮮語母音의記號表記法について | 全 | 音聲の研究 | 第四輯 | |
| 狐といふ言葉 | 全 | 朝 鮮 | 第二百號 | 昭和七年一月一日 |
| 朝鮮文字諺文의構造に就いて(梗概) | 白鳥庫吉 | 史學雜誌 | 第七十七號 | 明治二十九年七月 |
| 世宗大王과訓民正音 | 李重乾 | 한글(同人代表 申明均編) | 創刊號 | 昭和二年二月十日 |
| 正音以前의朝鮮글 | 權惠奎 | 全 | 全 | 全 |
| 우리한글의世界文學上地位 | 崔鉉培 | 全 | 全 | 全 |
| 聲音學上으로본正音 | 鄭烈模 | 全 | 全 | 全 |
| 한글과周時經先生 | 申明均 | 全 | 全 | 全 |
| 朝鮮語研究의正體는 무엇? | 鄭烈模 | 全 | 第二,三號 | 昭和二年三月二十日全年四月二十日 |
| 言語學上으로본朝鮮語 | 崔鉉培 | 全 | 第二,三,四號 | 昭和二年三月二十日 全年四月二十日 全年六月二十日 |
| 漢字音問題에對하여 | 申明均 | 全 | 第二,三,四,五號 | 昭和二年三月二十日 全年四月二十日 全年六月二十日 全年七月二十日 |
| 遊戯로된말工夫 | 李秉岐 | 全 | 第二號 | 昭和二年三月二十日 |
| 原始語外變成語 | 李秉岐 | 全 | 第三號 | 昭和二年四月二十日 |
| 朝鮮文法論(未完) | 鄭烈模 | 全 | 第三,四,六,七號 第二卷一,二號 | 昭和四年二十日 全年六月二十日 全八月二十日 十一月十五日 昭 和三年一月十四日 全十月二十日 |
| 言語와文字 | 鄭烈模 | 全 | 第四,五,六,七 | 昭和二年六月二十日,七月二十日 八月二十日,十一月十五日 |
| 잘못考誌되正音創造者 | 權惠奎 | 全 | 第四號 | 昭和二年六月二十日 |
| 결 말 | 李秉岐 | 全 | 全 | 全 |
| 周時經先生의略歴과眞影 | 未詳 | 全 | 第五號 | 昭和二年七月二十日 |
| 닿소리와홀소리 의뜻 | 崔鉉培 | 全 | 全 | 全 |
| 漢字의달이이르는音 | 李秉岐 | 全 | 全 | 全 |
| 된시옷이한무엇이나 | 申明均 | 全 | 第六號第七號 | 昭和二年八月二十日 全年十一 月十五日 |
| 조선말과호린소리 | 崔鉉培 | 全 | 第六號 | 昭和二年八月二十日 |
| 송도사루리 | 李常春 | 全 | 全 | 全 |
| 우리나라말소리와 다른나라말소리와의比較 | 崔鉉培 | 全 | 第七號 | 昭和二年十一月十五日 |
| 國語와方言 | 鄭烈模 | 全 | 第二卷一號 (即第八號) | 昭和三年一月十四日 |
| 홀소리 이름(母音調和) | 崔鉉培 | 全 | 全 | 全 |

| | | | | |
|-------------------------|-----|---------------------|--------------|------------------------|
| 조선글마침법(綴字法) | 申明均 | 全 | 第二卷一號 全二號 | 昭和三年一月十四日 全年十月 十二日 |
| 朝鮮語와佛敎 | 權憲奎 | 全 | 第二卷二號 | 昭和三年十月十二日 |
| 朝鮮語法의初歩 | 崔鉉培 | 한글(朝鮮語學會 代表申明均編) | 第一卷 第一號 | 昭和七年五月一日 |
| 綴字法統一問題를앞에놓고 | 李常春 | 全 | 全 | 全 |
| 우리글씨는한글으로맞추자 | 李萬珪 | 全 | 全 | 全 |
| 朝鮮語辭典編纂에對하여 | 李克魯 | 全 | 全 | 全 |
| 의히레의言語觀 | 金善琪 | 全 | 第一,二號 | 昭和七年五月一日 全年六月十日 |
| 만일新聞記事를내가쓴다면 | 李 鉞 | 全 | 第一卷一號 | 昭和七年五月一日 |
| 傳言吐와日文直譯의誤謬 | 李浩盛 | 全 | 全 | 全 |
| 말소리는어디서어떻게나는가 | 李克魯 | 全 | 第一卷二號 | 昭和七年六月十日 |
| 地名研究의必要 | 李熙昇 | 全 | 全 | 全 |
| 北關사투러뎡 | 李常春 | 全 | 全 | 全 |
| 조선사람은조선말을얼마 나아는가 | 崔鉉培 | 全 | 全 | 全 |
| 잘못쓰기쉬운文法 | 李 鉞 | 全 | 全 | 全 |
| 日本國字運動의一瞥 | 李熙昇 | 全 | 第二卷三號 | 昭和七年七月十九日 |
| 歐米列那의綴字改正論 | 李 鉞 | 全 | 全 | 全 |
| 中國은表意文字에서表音 文字로 | 李克魯 | 全 | 全 | 全 |
| 土耳其國의文字革命 | 李允宰 | 全 | 全 | 全 |
| 朝鮮文法의變遷 | 金允經 | 全 | 全 | 全 |
| 綴字法의合理化 | 申明均 | 全 | 全 | 全 |
| 綴字法原理 | 金善琪 | 全 | 全 | 全 |
| 서라침에關한諸問題의解決과그 實例의總覽 | 崔鉉培 | 全 | 全 | 全 |
| 變格活用의例 | 이윤재 | 全 | 全 | 全 |
| 中間音의過去와現在 | 김윤경 | 全 | 全 | 全 |
| 이름씨의細說 | 崔鉉培 | 全 | 第一卷四,五號 | 昭和七年九月十六日 全年十月 二十六日 |
| 조선말의호소리 | 李克魯 | 全 | 第一卷四號 | 昭和七年九月十六日 |
| ㄱ△◇을다시쓰자 | 李 鐸 | 全 | 全 | 全 |
| 科學術語와우리말 | 이만규 | 全 | 全 | 全 |

以上은 最近 雜誌들 中에서 한글에 關한 것을 뽑아 온 것입니다。或 漏落된 것이 있
으면 惠敎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한글第五號以下는다음機會로입니다。)

(註一) 朝鮮總督府編「朝鮮圖書解題」

(註二) 쿠랑著「朝鮮書目解題」一八九四年初版. 一八九六年增補. 一八九九年增補。

(Maurice Courant, bibliographie Coreenne, 1st Ed. 1'94, 2nd Ed. 896, 3rd Ed. 1899.)

(註三) 龜田次郎著「明治時代日鮮兩語比較論論文表」(昭和六年十一月十五日「靑丘學叢」第六號所載)

[注意] 이 文獻들을 購讀코자하야 發行所, 發賣所, 欲, 現存與否들을 알고저하시는분은,

中央印書館——京城府慶雲洞九六 } 로 問議하야보시오。編輯子。
漢城圖書株式會社——京城府聖志洞三二 }

逸 話

豪雄의 意氣

【二回】

金 克 培

이런것이 모두 임시처변(臨時處變)이었
다。

그러나, 섬섬한걸 참 씹씩한 사내이
다。 나를 언제 보았다고 계집과 재산을
다 내어맡기고 툭툭 털고 내려난담。 어
쨌든大丈夫다。 도적놈이란 말듣고 늙
어죽기는 넘우 가까운걸。 그런 사람하
고 世上일을 같이 해 보았으면.....어
느때 맞나리라고 참 섬섬하다。 말은 어
떠한 말이 있누。』

하고, 마판을 끼웃이 들여다 보았다。 참
좋은 말이다。 오추마(烏騮馬)다。

『너도 네 主人과 같이 씹씩하고 튼튼하
런 인제는 내가 네 主人이다。』

하고, 말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말은 반
기는듯이 흥흥소리를 하고 굽을 탁탁 친
다。 李生은 말고삐를 끌어내어 少女와 모
든 보화를 실고 집으로 돌아왔었다。 이것
이 李生의 활동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어서 그는 兵曹判書도 하고 訓練大將도
하고 右議政까지 한것이였다。 그후 李浣
이 訓練大將으로 捕盜大將을 겸하여 지날
때에 시골서 大賊하나를 잡아왔다。 그 얼
골이 李大將의 기억에 틀림없는 냇날 山
中の 적피였었다。 즉시 옥(獄)에 내려가
두기를 명령하였다。

그날 밤이였었다。 李大將은 평복을 갈
아입고 적피가 가쳐어있는 옥문앞에 다달
랐다。

『이 죄인은 내가 담보하였다가 래일 새

벽에 갔다 가돌리이니 다른 죄수나 단
달 하여라。』

하고, 옥사장에게 분부를 나린 李大將은
자기의 손으로 적피의 항쇄족쇄(項鎖足
鎖)한 것을 다 벗겨놓고 자기 첩의 집으
로 다리고 갔었다。

『냇날 친구 오신다, 山月아。』

하고, 적피의 손목을 고을고 李大將은 안
사람으로 들어갔다。 山月이라 하는 것은
山에서 얻어왔다하야 李大將집에 온 뒤로
부터 부르는 이름이다。 분벽사창에 등
불을 밝히고 고요히 앉아 바누질을 하든
山月이는,

『웬 손님이기에 안사람으로 불러들이시
누。』

생각하고, 몸을 반쯤 이르켜서 바누질그
릇을 휘둥휘둥 치이며 칠끗 치어다보고는
소소리쳐 놀라며,

『이게 웬일이오?。』

소리한마디에 눈물만 짓고 다시는 말이
없다。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슬
프기도 하였든 것이다。

『웬일일것 잊소? 잡혀왔지요。』

『그노릇을 끝끝내 헛드란 말씀이오? 저
것을 어찌해。』

하고, 첩은 남편 李大將을 바라본다。 살
려줄 수 없을가 하는 눈치였다。

『너편네 사람이 무얼 알게 어서 술이나
내오。 우리는 작별할 때도 술이요, 맞
날때도 술이요, 반가워도 술 슬퍼도 술
걱정이 되어도 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이니까。』

하고, 李大將은 훌적어리고 앉았는데 山
月이를 들추어 이르킨다。 잠시간동안에 술
상은 나왔다。 술 좋아하는 남편이니까 술
상은 늘 예비가 있던 것이였었다。

『나는 죄인이요, 대김은 법말은 관원인
데 이래서 되겠소?』

『아냐, 법은 법이요 사정은 사정이 아니

「갯소? 내일부리는 법으로 할지라도 오 늘은 술이나 먹읍시다. 그래 아까 우리 아씨의 말과 마찬가지로……아 참 우리 아씨라고 하는 것이 옳을는지 당신의 아씨라고 하는 것이 옳을는지 모르지마 는……여태까지 도적질을 했던 말이오? 고삐가 길면 밧힐 때가 있는 법이야 하 필 내손에 걸렸으니 어찌한단 말이오。」 하고, 李大將은 답답한듯이 곁에 앉아서 눈물어린 눈으로 양쪽을 격금내기로 치어 다보고 있던 山月이가 아씨니 무에니 씨 부렁거리는 바람에 무안에 지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잡아흔들어 술을 치 라고 하여 또 한잔씩 먹었다.

『대감도 아시다시피 내가 촌구석에서 농 사나 짓고 들어엿드릴 놈은 못됩니다. 그러. 세상일을 하자하니 날같이 미천한 놈은 나라에서 써주지는 않을테지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도적질이나 하자 …… 박탁(朴鐸)이같은 사람은 그 좋은 재조를 물어놓고 신분을 지키느라고 말 못할 고생을 칩니다. 그대도 지낸 디다마는 우리와는 생각이 단편이니까 요…… 그래도 내가 도적질을 할망정 날의 못할일은 한척이 없습니다. 사람 을 죽였다거나 잔전량에 곱이 끼어서 농민들의 농우소 판돈을 빼앗았거나 한일은 조금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부 자의 남는 돈을 나누어다가 나도 먹고 없는사람 구제할 일 밖에야 다른일은 없습니다. 그러저럭 내마음대로 한세상 활개짖다가 죽고 미는게지요. 어느때 당신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한번 죽지 두번죽습니까? 당신의 손에 죽을지라도 술한잔만은 넷날정도로 압니다.』

『여보, 박탁이가 누구란말이오?』
 「대감이 아실수 잇습니까? 박탁이라는 떠꺼머리 총각아가 잇지요. 나히三十이 넘도록 장가도 못가고 집나무장사

를 하여 늙은어머니하고 단두母子가 사 는꼴이야 거지에 지지 않습니다. 힘은 天下壯士요 지혜와 제조로 말할지라도 世上에 쓰이게 되면 乙支文德 李舜臣의 事業을 못할이가 아니지요.』

『박탁이가 시방 어대 잇느냐?』
 고 李大將이 다시 말을 계속하려 할 때에 四方에 잦은담이 울고 동편한울이 흰해지며 붉은 노을이 떠오른다. 날은 밝았다. 李大將은 곧 조복을 갖추어 입고 조회에 들어갔다.

『밤사이 아무일 없소?』
 하고, 孝宗大王께서 하문하신다.
 『네, 어제 시골서 대책하나가 잡혀왔습 니다.』

하고, 李大將은 전후사실을 날날이 여쭙 었다.

『그자가 정의 恩人이라 하니 어찌 조치 하면 좋을고?』

하시고, 孝宗大王은 다시 하문하신다. 孝宗께서는 李大將을 못내 믿고 사랑하시는 터이기 때문에 그의 恩人까지도 살려주실 생각이었었다.

『國法에 어찌합니까?』
 하고, 한참 머뭇머뭇하던 李大將은 다시 말을 계속한다.

『國法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지요 마는 軍法에 비치어보면 혹시 변통할 도라가 잇을가 합니다.』

『응, 그래.』

『죽을 죄가 잇더라도 이다음에 功을 세 우기 위하여 軍法에 잠시간 용서하는 수가 잇지아니 합니까? 그자를 사방으로 회개시켜서 나라에 功잇는일을 하도록 하였으면 좋지 아니할가 합니다. 소 신의 시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오라 그자는 天下壯士입니다. 나라에서 써주 었으면 죽히 나라의 간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음지, 음지.』

하시느, 孝宗大王의 한 말씀에 적피의 죄를 특별 용서하고 군교(軍校)의 직분을 부쳐주었었다. 그사람이 용력과 지혜가 겸비하여 자기의 직무를 잘 지키고 그후에 武科로 出身하여 兵水使의 상당한 벼슬을 두루 지나었었다. (東野彙輯).

× ×

李大將이 訓練大將으로 잇을 때에 어느날 밤중에 대궐에서 입시하라는 명령이 게시었었다. 이 급보를 들은李大將은 잠수간에 창황하여 사모관대(紗帽冠帶)를 대강대강 꾸며입고 재촉하여 나간다. 안산방에서 자다가 구중놈들의 떠드는 서슬에 깨어 이러한 계동집은 하인에게 전갈하여李大將을 잠수간 안으로 들시사고 하얏었다. 계동집은李大將의 둘째첩이였다.

『이 밤중에 부르실 때에는 필경에 댤일이잇는 것이오니 속에 갑주(甲冑)를 입으시고 그우에 모대를 하고 가십시오.』 이말 한마디가李大將의 귀에 精神劑가 되었었다.李大將이 내궐문에 막 들어서자마자 동소불이 一時에 꺼져서 캄캄나라가 되고 화살이 비오듯이 핑핑 날라온다.李大將이 속에 갑주를 입은지라 염녀없이 화살을 피하여 합전(榻前)에 들어가 엎드렸다.

「참 大將재목이로다. 장수라하는 것은 어느때 없이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에 내 경을 시험하얏거니와 청국을 북벌할 임무를 가진者 누구뇨?」

하시며, 못내 칭찬하시코 나라의 큰일을 의논하시었다. 예전부터 여편네말도 귀담어 들으란 말이 잇지마는 계동집말은李大將이 귀를 기울려가며 듣든 것이었다. 이 계동집은李大將이 거터에서 오고가는

말한마디에 연애가 생긴 것이었다.李大將이 젊어서 어느때 전등을 둘러메고 호기스바람 좋게 어느곳을 지난다. 앞에는 한 女子가 까치거름을 걷고잇다. 짓궂은李大將은 슬몃슬몃 뒤를 따른다. 치마입은 것을 보고 士夫家의 女子가 아닌 줄은 짐작하얏다. 女子의 치마끝이 바람에 불리어서 빠지었다. 女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엿든지 그냥 걸어간다.

『이웃집 대문이 열렸군.』

李大將은 깨우쳐 주는체 하고 비웃는 말로 한마디 던졌었다. 좀체 女子같은말의 의미를 모를 것이요, 또, 그 말을 깨닫고 보았으면 부끄럼에 지쳐서 까치거름도 어대가고 풍지가 빠지게 다라날 것이었다.

『이웃집개가 아니더면 도적맞을뻔했군.』 이와같은 대답이 女子의 밝으레한 입술을 통하여 건너온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만으로 다 허락된 것이었다. 百年同居하는 동안에李大將의 총명을 많이 도아준 것이었다. 밤수중에 대궐에 들어갈 때 계동집이 아니엇더면 어찌 되었을가? 李滄의字는 澄之요, 시호(諡號)는 貞翼公이니 慶州李氏였었다. —(끝)—

(-以下二六〇頁에서續-) 「|」 或은 「丁」로 變하는 것이 現代 音韻變遷의 趨勢인 것을 보면 「하늘」도 將來의 「하늘」로 아주 變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하늘」로 表記함도 좋을 것입니다.

요전에 말씀하신 「하늘당추」는 果然 「하늘당고추」의 略語란 뜻을 私信으로 敎示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웁습니다.

(李 鉉)

質 疑 應 答

【무름】 1. 「한글」 第四號 李克魯先生의 「닿소리 내는 법」에 ㄷ, ㅈ을 「거듭홀소리」로 세어야 좋을듯 한데, 닿소리로 씬은 何故오리까? 萬若 이것은 닿소리로 한다면 모도 닿소리로 세어야 하지 않습니까?

2. 李鐸先生의 「다시 쓰기를 主張」의 ◇字는 訓民正音 二十八字에 잇는 것입니까? 그리고 ㅎ △ ◇ 三字를 바침함에 단 쓰고 頭音엔 쓸 수 없겠습니까?

(慶州 金聲澤)

【대답】 1. 말 소리를 研究하는 데에는 文字를 보는 것이 아니다 實際 發音을 살펴서 그 音價를 定하는 것이 聲音學의 科學的 態度와 方法이 될 것입니다.

거듭 홀소리라는 것은 두 홀소리가 모여서 한덩이로 잇대어 나뉘어 어느 것이나 홀소리의 性質만은 잃지 아니합니다. 곧 摩擦性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 말소리에 ㅈ ㅉ ㅋ ㆁ ㆁ의 첫소리는 홀소리 ㄱ이 아니오, 입천장쪽으로 더 올라간(口蓋音化한) ㄱ(j)라 벌서 摩擦性을 띤 소리오, ㄴ ㄷ ㄱ ㆁ의 첫소리는 홀소리 ㄴ나 ㄷ가 아니오, 다 같이 입술을 거의 닫은(唇輕音化한) ㄴ(u)라 벌서 摩擦性을 띤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다 닿소리로 치는 것이 옳습니다. (李克魯)

2. ◇字는 訓民正音엔 없는 것입니다. 本誌 第四號 164頁 끝으로 第二行에도 正音에 ◇字의 存否가 說明되어 있습니다.

ㅎ △ ◇ 三字도 다 頭音으로 쓸 수 있습니다. 訓民正音에 「終聲復用初聲」이란 말은 音節單位綴에 잇어서는, 이를테면, 同一한 닿소리를 「각」 이러케 頭末에 다 두루 쓰란 말이오 單語單位綴에 잇어서는

「ㄱ-ㄱㄷㄱ」 이러케 머리에나 中間에나 끝에나 어디를 勿論하고 그 音의 需要에 應하여 다 쓸 수 잇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原來 우리의 글자는 必要에 應하여 어디나 쓸 수 잇도록 完美하게 지어진 글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頭音에 쓰고 안씀은 다만 그 音들을 頭音으로 가진 말이 잇고 없음이 問題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頭音으로 쓰면,

아——→와(wa), 야——→위ㅏ(wja),
어——→워(wə), 여——→위ㅑ(wjə),
오——→우ㅓ(wo), 요——→위ㅓ(wjo),
우——→으ㅓ(wu), 유——→위ㅓ(wju),
으——→으ㅓ(wu), 이——→위(wi),
애——→왜(wɛ), 에——→웨(we),
아——→라(ra), 야——→랴(rja),
어——→려(re), 여——→려(rjə),
오——→로(ro), 쇼——→료(rjo),
수——→루(ru), 슈——→류(rju),
스——→르(), 시——→리(ri)
애——→래(rɛ), 세——→레(re),

들과 같이 發音됩니다. 이것으로 보면,

「아……」들은 「라……」들이 잇는 以上 現在에 그리 必要가 없을듯 합니다. 그러나, 그러라고 終聲으로도 안 써야겠다는 말은 勿論 아닙니까. 終聲에 必要가 없어서 아니 쓰는 ○는 그 必要에 應하여 現在 初聲에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은 (但, 「아」는 「와」 即 「wa」와 같고 「오아」와는 같지 않음 餘皆倣此) 主로 外國語音을 적는 데에 좀 必要할듯 합니다. 그런데, 새토들 符號한 「ㄴ」와 같은字는 實上 在來 우리글字인 이 ◇字로 써야 좋을듯 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하 하 허 혀 호 호 후 휴 호 히 해 해
꽤 휘……

通 信 欄

米布한글研究會 李 廷 大

貴會에서 發刊하는 「한글 雜誌 二, 三號는 들림없이 받았습니다, 이 다음 책 보내실 때엔 創刊號 一部를 찾으셔서 부쳐 주심을 仰望하나이다。

貴誌(한글)가 우리 民族에게 多大한 貢獻이 될과 우리가 받드시 普遍的으로 能知하여야 할것은 再論할 必要가 없습니다。 오히려 늦은 感이 있습니다。 本會 곳 「米洲新興文藝協會」에서는 雙手를 들어 貴誌의 發展을 祝賀하옵나이다。

追後도 부리는 貴誌에, 義捐金으로, 每月 漏落없이 一圓씩 부쳐 드리겟사오니, 少額이나마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리고 또한 「米布(곳 布哇와 米洲) 한글研究會」를 九月 五日에 北米 加洲羅城에서 開催하고 每月 「한글研究」라는 판프

를 發刊기로 決議하엿습니다。 前後如斯 하오니 한글研究에 關한 必要한 書籍들 몇卷을 부쳐 주시면 그 값은 곧 부쳐 드리겟습니다。

이런 事業이 米布에서는 처음인만큼 대단한 趣味와 우리 第二世國民 教育에 必要할 것을 우리는 期約하나이다。

米布한글研究會의 任員은 아래와 같이 被選되엿습니다。

- 會 長 李廷斗
- 副會長 李廷大
- 庶務部 金永浩
- 財務部 趙炳圭

그리고 또한 「한글研究」雜誌의 主筆은 李廷斗님으로 被選되엿습니다。

우리는 朝鮮語學會의 指導와 密接한 連絡을 要求하오니 貴會의 一切 進行 方略과 下教를 바라는 同時에 貴會의 出版物을 紹介하여주심을 바라옵나이다。

1932년 9월 30일

本 會 記 事

1932年 10月 8日 下午 四時에 本會館에서 月例會를 열 한글날 記念祝賀會에 對한 의논이 잇었다。

1932年 10月 29日 下午 六時에 訓民正音 頒布 第四百八十六回 記念 祝賀會를 本會 主權로 明月館本店에서 舉行하디。

1932年 11月 12日 下午 四時에 會館에서 月例會를 열고 한글의 여러 가지 問題로 討論하디。

社 告

地方에서 支社 혹 分社를 차리기를 원하시는분은 本社로 물으시든지, 郵票 二錢짜리를 보내시오。

投 稿 歡 迎

- 一. 한글에 關한 研究論文 및 研究資料等。
- 一. 隱名을 쓰실지라도, 本社에까지는 姓名 住所를 밝히 써 주실 일。 添刪과 記載 與否는 編輯部의 權限에 잇음。
- 一. 原稿는 一切 返還하지 아니함。

寄 贈 받 은 雜 誌

- ▲青年十二月號 ▲東光十月號 ▲新生十,十一月號 ▲實生活十月號 ▲三千里十月號 ▲天道教會月報十,十一月號 ▲아이生活十一,十二月號 ▲우리들十一月號 ▲佛教十一,十二月合同號 ▲日新第五號 ▲白岳十一月號 ▲宗教時報十二月創刊號 ▲黨友第六號

昭和七年 十二月 廿三日 印刷
昭和七年 十二月 廿六日 發行

「한글」 第六號

定價 { 一 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 年 一圓六十錢

編輯兼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人 申 明 均

印刷者 京城府 水標町 四二 李 炳 華

印刷所 京城府 小標町 四二 新 少 年 社 印 刷 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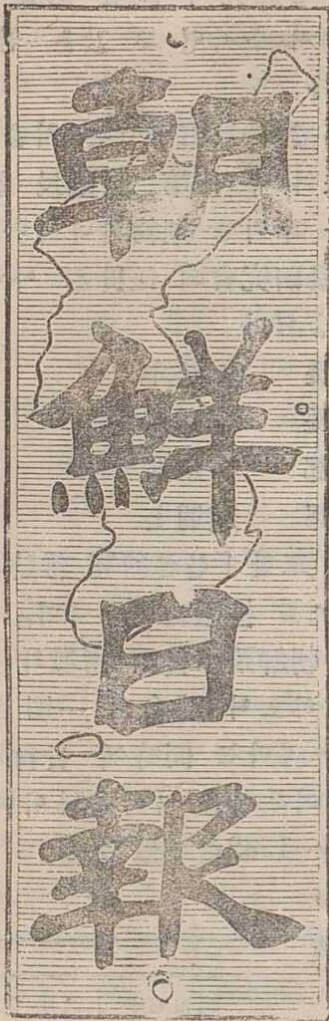
發行所 京城府 水標町 四二 朝 鮮 語 學 會

電話(光)一三九九番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京城府 慶雲洞 九六

總販賣所 中 央 印 書 館
電話(光)一一九三番
振替京城一二一七八番

祝 「한 글」 發 展



米國로스안젤스市
米布한글研究會會員一同

米國로스안젤스市
在米新興文藝協會

米洲新興文藝協會
李 廷 大

昭和七年三月二十六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七月十九日（第三種郵便物認可）